



코스피 1686.24 (-18.52)	코스닥 516.61 (+10.93)
금리 (국고채 3년) 1.07 (-0.06)	환율 (원-달러) 1232.80 (+2.90) (26일)



[뉴스]  
해외 생산기지  
줄줄이 섰다  
재가동 언제?  
02

# 사상 첫 '한국판 양적 완화' 금융사 유동성 무제한 공급

## 한은 금통위 개최

내달부터 3개월간 매주 1회  
전액공급방식 RP 매입키로  
금리 상한선 0.85% 설정  
대상 기관·증권사 대폭 확대

한국은행이 다음달부터 3개월(4~6월)간 금융기관에 무제한으로 유동성을 공급한다. 매주 1회 환매조건부채권(RP)을 한도 없이 매입하는 것. 이 같은 전액공급방식의 유동성 지원은 외환위기 때도 없었다. 사상 처음이다. 사실상 '한국판 양적완화(QE)'에 돌입한 것이다.

한은은 26일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회의를 열고 RP 무제한 매입과 공개시장운영대상 기관 및 대상 증권을 확대하는 내용 등의 '공개시장운영규정과 금융기관대출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한은은 오는 6월 말까지 매주 1회 정례적으로 한도 없는 전액공급방식의 RP(91일 만기) 매입을 통해 시장의 유동성 수요 전액을 제한없이 공급할 계획이다.

### ◆ '한국판 양적완화' 시작

금리는 기준금리(0.75%)에 0.1%포인트를 가산한 0.85%를 상한선으로 설정한다. 입찰시 모집금리를 공고할 예정이다. 첫 입찰일은 4월 2일(목요일)이다. 이후부터는 매주 화요일마다 진행된다. 7월 이후에는 그동안 입찰결과,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이변 조처의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은은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로 시중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부족해지면 RP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공급한다. RP란 금융기관이 일정기간 후에 다시 사는 조건으로 채권을 팔고 경과 기간에 따라 소정의 이자를 붙여 되사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가 26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안정방안 실시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국은행

는 채권이다.

한은이 한도를 정하지 않고 RP매입에 나서 건 처음이다. 1997년 외환위기 때나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실시된 적 없다. 앞서 한은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에 RP 매입을 통해 채권시장안정펀드에 출자한 금융기관에 2조 1000억원을 공급한 바 있다.

윤면식 한은 부총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한국은 물론 전세계 금융시장에서 변동성이 확대됐고, 일부 금융시장에서 자금이 조달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러한 대책을 내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로금리 수준까지 간 다음에 더 이상 금리정책 여력이 없어 국채나 주택저당증권(MBS) 등을 매입하는 방식의 선진국 중앙은행 양적완화와는 다르다"면서도 "시장 수요에 맞춰 수요를 전액 공급하는 것이 사실상의 양적완화가 아니냐고 한다면 꼭 아니라고 할 수 없고, 그렇게 봐도 크게 틀린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사실상 한국형 양적완화로 봐도 무방하다는 얘기다.

### ◆ 외화 LCR 규제 80→70%

한은은 또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에 통화안정증권·증권단수매매 대상 7곳, 국고채 전분 딜러 4곳 등 증권사 11곳을 추가했다. 신한금융투자, 현대차증권, KB증권, 하이투자증권,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교보증권, 대신증권, DB투자증권, 메리츠증권 등이다. 기존에는 은행 16곳, 증권사 5곳으로 한정됐으나 대폭 늘린 것이다.

RP매매 대상 증권도 8개 공공기관 특수채를 추가했다.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수자원공사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채권 등이다. 대출 적격담보증권에도 동일한 공공기관 특수채와 은행채를 추가했다.

한편 한은과 기획재정부, 금융당국은 금융기관의 외화유동성 확보를 위한 조치도 내놨다. 국내 은행들에 적용되고 있는 외화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을 5월 말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기존 80%에서 70%로 낮추기로 했다.

외화 LCR은 한 달 동안 빠져나갈 외화에 대비해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고(高) 유동성 자산 비율을 의미한다. LCR 비율이 높을수록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많아 유동성 위기가 발생했을 때 그만큼 오래 견딜 수 있다.

또 금융회사의 해외 차입 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앞으로 3개월 동안 외화건전성 부담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외화건전성부담금은 정부가 금융기관이 보유한 비예금성 외화부채(단기 차입금)에 일정 비율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은행들이 외국으로부터 과도하게 자금을 빌리는 걸 막기 위한 것으로 2011년 8월 도입됐다.

/김희주 기자 hj89@metroseoul.co.kr



26일 서울 종로구 공평동에 위치한 에스엠면세점. /연합뉴스

## 에스엠면세점, 시내 면세점 특허권 반납 임대료 수백억... 코로나에 백기

롯데·신라 면세점도 휴업상태

동일해 월 매출액의 2배를 임대료로 내야 한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하늘길을 막으면서 면세점 업계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실상 업무정지 상태에 돌입한 가운데, 매달 수백억원에 달하는 임대료는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전날 에스엠면세점이 서울 시내 면세점 특허권을 반납하면서 '줄폐업'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선도 있다.

에스엠면세점은 지난 25일 인천공항 1터미널 신규 사업자 입찰 포기를 선언했다. 시내면세점도 철수한다. 서울 시내면세점은 9월 30일 문을 닫는다. 에스엠면세점은 인천공항 내 2개의 출국장 면세점과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하는 등 사업을 확장해왔지만, 결국 코로나19에 백기를 든 것.

면세점은 인천공항공사와 계약당시 최소보장액 조항이 있어 매출액과 관계없이 일정 임대료를 지불해야 한다. 인천공항 면세점은 한 달 매출이 평소 2000억원, 임대료는 800억원 수준이다. 하지만 코로나사태 이후 이달 매출은 400억원으로 평소 대비 80% 감소가 전망되는 반면 임대료는 800억원으로

이에 매달 월 평균 100억원 정도 적자를 보던 인천공항 면세점 업체들의 손실은 3월 한 달 동안에만 1000억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매달 수백억원의 임대료와 인건비를 지불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사업을 접는 것이 낫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김포공항의 경우 국제선 청사에서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는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은 현재 휴업 상태다. 롯데면세점 김포공항점은 코로나19 사태 전까지만 해도 하루 평균 2~3억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휴점 직전에는 하루 매출 0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현대백화점그룹도 웃을 수 없는 상황이다. 현대백화점그룹은 최근 인천공항 제1터미널 입찰전에서 패선·잡화를 취급하는 DF7 구역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시내면세점에 이어 공항 면세점까지 진출한만큼 거래 규모를 확대, 명품 브랜드를 유치하게 됐다. 그렇지만, 하늘길이 막힌 상황에서 높은 임대료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의 시선이 존재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 그치지 않는 외국인 매도... 코스피 다시 후퇴

경기 부양책 집행 전까지  
변동성 장세 지속 될 듯

코스피가 다시 1700선을 내주고 후퇴했다. 한국판 양적완화(QE)가 발표됐지만 외국인과 기관 매도를 견디지 못했다. 코스닥은 2%대 상승으로 마감했다. 주요 국가의 경기 부양책이 실제 집행되기 전까지 금융시장 혼동은 계속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6일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8.52포인트(1.09%) 하락한 1686.24에 장을 마쳤다. 외국인이 5312억원 어치의 주식을 팔아치우며 하락장을 부추겼다. 기관은 2150억원을 순매도했고, 개인은 홀로 7177억원을 사들이며 매



코스피가 26일 한국은행의 '양적완화' 선언과 미국 상원의 대규모 경기부양안 통과 등 호재에도 불구하고 하락 마감했다. /연합뉴스

수 포지션을 취했다. 반면 코스닥 지수는 개인 매수 우위 속에 전 거래일보다

10.93포인트(2.16%) 상승한 516.61에 거래를 마쳤다.

증권가에선 글로벌 경기 부양책에 대한 실제 집행효과를 장담할 수 없어 변동성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정용택 IBK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시간차는 있지만 우리나라와 미국 모두 경기 부양책 등으로 최근 이틀간 15%가량 지수 상승효과 본 것"이라고 했다.

전날 20원 가까이 내렸던 환율도 다시 올랐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일보다 2.9원 오른 1232.8원에 마감했다.

/송태화 기자 alvin@

## 하늘길 막힌 항공업계 새 운수권도 무용지물

국내 항공업계가 차별화된 프로모션을 앞세워 '고객 모시기'에 나선다. 이는 국토부로부터 새롭게 운수권을 배분받았지만 코로나19로 하늘길이 막히면서 무용지물이 되자 차별화 전략에 나선 것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국적 항공사들은 지난달 27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새로운 노선에 취항할 수 있는 운수권을 배분받았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해당 운수권을 실제 활용하고 있는 곳은 에어인천 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7개 항공사가 운수권을 받았지만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국가 간 하늘길이 봉쇄됐기 때문. 반면 화물전용 항공사인 에어인천은 러시아 노선을 주1회 추가로 띄우게 됐다.

그러나 최근 전세계적으로 확산된 코로나19로 인해 국가 간 이동이 거의 불가능해지며 운수권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다.

26일 기준 한국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심사를 강화한 나라는 180개국이다. 기존 국제선들도 비운항하는 상황에서 새 운수권의 배분은 무의미해진 것.

날개를 펼 수 없게 되자 항공사들은 새로운 방법으로 탑승객 공략에 나섰다. 제주항공은 항공권 취소 및 변경 수수료가 1회에 한해 면제해주는 프로모션을 시행 중이며, 플라잉강원은 6개월간 전 노선에 대해 무제한 탑승이 가능한 '인피니티 티켓'도 출시했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



# 해외 생산기지 줄줄이 ‘셋다운’ 불꺼진 경제영토, 재가동 언제?

코로나19, 車·배터리 등 업계 강타

美·유럽·인도·브라질·필리핀 등 세계 곳곳서 생산공장 가동정지 공장 이어 매장운영까지 멈춰

현대·기아차, 삼성, LG 등 기업 “직원 안전위해 가동 중단 결정 장기화면 피해규모 눈덩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팬데믹(전세계적 감염 확산)으로 국내 주력 산업의 생산기지에 경고등이 켜졌다. 특히 해외 공장 가동 중단에 이어 현지 매장 운영까지 멈춰서면서 국내 산업계가 복합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 LG, 현대·기아차, SK이노베이션, LG화학 등 국내 기업 대부분이 미국과 유럽 등에 주요 생산 거점을 두고 있다. 이들 기업들은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본격적으로 공장 가동 중단을 선언하고 있다.

국내 자동차 업체의 경우 미국과 유럽 등 세계 주요 지역에 공장을 두고 있어 코로나19에 따른 피해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기아차는 미국과 유럽, 인도, 브라질 공장의 가동을 멈춘 상태다.

현대차 미국 앨라배마 공장(HMM A)은 오는 31일까지 생산 중단을 결정했다. 당초 22일까지 폐쇄하기로 했던 기간을 연장한 것이다. HMM A는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앞서 지난 18일부터 가동을 중단했다. 앨라배마 공장에서 엔진을 공급받는 기아차 조지아 공장도 가동을 멈췄다.

현대·기아차는 유럽 공장도 생산 중단에 들어갔다. 현대차 체코 공장과 기아차 슬로바키아 공장이 23일부터 2주간 문을 닫는다. 또 현대차 브라질 상파울루 공장과 인도 첸나이 공장 역시 일시 생산 중단 결정을 내린 상태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줄어들면서 재가동에 들어간 중국 공장을 제외하고 해외서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곳은 현대차 러시아 공장과 터키 공장, 기아차 멕시코 공장 등 3곳뿐이다.

한국타이어도 코로나19 사태로 미국 현지 공장 가동을 30일부터 중단한다. 헝가리 공장에 이은 두번째 셋다운이다. 미국 코로나 확진자가 5만명을 넘어서며 감염 우려가 커지고, 세계 완성차 기업들이 연이어 문을 닫자 타이어 수요가 급감했기 때문이다.

해외 공장을 둔 배터리 업계도 가동 중단에 나선다. 미국 미시간주가 3주간 자택 대기 명령을 내리면서 LG화학과

삼성SDI의 미국 배터리 공장이 가동을 멈췄다.

LG화학은 “주 정부 지침에 따라 미국 미시간주 홀랜드 전기차 배터리 공장 가동을 4월13일까지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도 슬로바키아, 인도, 브라질 등에 위치한 텔레비전·스마트폰 공장 가동을 잇따라 중단한 상태다. 미국과 캐나다의 오프라인 매장은 지난주부터 폐쇄됐다.

철강업계도 포스코는 이탈리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가공센터가 줄줄이 문을 닫았다. 현대제철은 현대·기아차 공장 셋다운 영향으로 인도 타밀나두 주 공장 가동을 이달 말까지 중단한다. 다만 철강업계는 자동차, 조선 등 전방 산업의 공장 가동 중단이 심화되면서 장기적으로 위기가 확산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향후 철강의 수요 둔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해외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이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 공장 가동 중단을 선언하고 있다”며 “현재는 가동중단에 따른 영향이 크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화 될 경우 피해 규모는 견줄 수 없이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 같이 살자, 앞으로도



기자 수첩

김재웅  
(산업부)

은 국민이 하나가 됐다. 코로나19 사태를 이겨내기 위해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쓰고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동참한다.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온정의 손길과 응원의 메시지도 이어지고 있다.

기업들도 힘을 보탤다. 삼성이 글로벌 사업장을 총동원해 마스크 공수작전을 펼쳤고, SK하이닉스는 기부받은 마스크를 사회에 환원했다. LG는 해외에서 격리된 국민들에게 도시락을 제공하는 등 알려지지 않은 선행도 많다.

정부도 화답했다. 경영에 부담이 될만한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자금난을 우려해 대규모 지원 정책도 내놨다.

증권가에서는 ‘동학 개미 운동’이라는 말도 나온다. 개인들이 외인들이 팔아치우는 주식을 모조리 사들이면서 주가 폭락 사태를 최소화 하면서다. 재계도 자사주 사기에 동참한 덕분에 증시는 일단 반등까지 이뤄낸 상태다.

여기서 끝나면 안된다.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사태가 확산하는 분위기인 가운데, 유통 시장과 금융망이 무너지는 ‘넥스트 코로나19’ 공포가 다시 엄습해오고 있다. 이미 재계는 사회 기여도를 높인 사회적 안전망을 다시 구성해야 한다는 의지를 밝히며 사회 안전에 기여할 방법을 모색하고 나섰다.

정부는 그동안 쏟아부은 재정을 어떻게 메꿀지 답을 찾아야 할 것이다. 서민들과 기업에 추후 막대한 세금을 물려 ‘줬다 뺏을’ 심산이라면 일찌감치 포기해야 한다.

신산업 분야에서도 이제는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생활 양식이 완전히 뒤바뀌면서 극장 등 전통적인 사업이 크게 무너진 반면, 배달과 웹스트리밍 사업은 대박을 터뜨렸다. 어쩔 수 없는 시대 변화이지만 외면해서는 안된다. 택시 사업을 고사시키려다가 역풍을 맞은 타다와는 다른 선택을 해야 한다.

은 국민이 화합하는 역사적인 시기다. 그 누구보다도 슬기롭고 현명하게 전세계적 재난을 이겨낼 수 있었다. 앞으로도 서로 싸우기보다는 함께 살자는 생각으로 미래를 꿈꾸는 우리가 되길 바란다.

/juk@



봄비에 활짝 핀 꽃처럼 활짝 피어난 화원시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누그러지는 추세를 보인 26일 오후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화원시장에 모처럼 장이 크게 들어섰다.

내리는 봄비에 상인들이 펼친 파라솔이 봄꽃처럼 만개해 있다. 화원시장은 1914년 처음 문을 열어 100여년의 전통을 자랑하며 1·6일에는 오일장이 크게 선다.

/연합뉴스

# SK종합화학, 체질개선 ‘고부가화학社’ 거듭

48년 만에 나프타공정 등 가동 중단 고부가화학소재 분야 다편체인지 추진

SK종합화학이 고부가 화학회사로 체질개선에 돌입한다.

SK이노베이션은 SK종합화학이 범용 화학제품 생산 비중을 줄이고 고부가 화학제품 비중을 높이는 사업구조로의 혁신을 위해 시황에 크게 영향을 받는 범용제품 생산공정 일부를 가동 중단하기로 하는 등 고강도 다편체인지를 시작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SK종합화학은 26일 SK울산CLX 내 NCC(제1 나프타분해공정)공정과 EPDM(합성고무제조공정)공정을 가동 중단을 결정했다.

SK종합화학은 올해 12월부터 제1 나프타 분해공정인 NCC공정을 48년

만에 가동 중단하기로 했다. 이 NCC 공정은 1972년 상업가동을 개시해 연간 20만톤 규모의 국내 최초 나프타 분해 공정으로 한국 석유화학산업의 효시라 할 수 있다. 이 공정이 중단되면 SK종합화학의 에틸렌 연간 생산량은 87만톤에서 67만톤으로 줄어든다. NCC 공장에서 원료를 받아 생산하던 3.5만톤 규모의 EPDM공정(1992년 상업가동 개시)은 2분기 내 가동 중단할 계획이다.

SK종합화학은 “회사는 시황에 민감한 범용제품 비중을 축소하고, 시황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고부가 화학소재 분야로의 다편체인지를 추진해 오고 있었다”며 “지금까지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공정 개선과 안정적 운영에 노력해 왔으나, 안타깝게도 가동을 중단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글로벌 신증설의 영향에 따른 공급과잉, 노후 설비에서 오는 경쟁력 저하 및 그로 인한 안전·환경 문제 등도 고려했다”며 “다만 미래 시황 및 경쟁력 등을 감안할 때 스크랩 등도 검토하고 있으나 그 시기는 부지 활용, 신규 투자 계획 등을 감안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K종합화학은 두 공정에서 근무 중인 구성원들에 대해 안정적인 공정 가동 중단 후 개인 의사, 역량, 커리어 등을 감안해 전환배치할 예정이다.

또 두 공정으로부터 제품을 공급받고 있는 고객사들에게는 가동 중단 사실을 알리고 제품별 안정적 공급방안을 마련해 고객사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할 방침이다.

/양성운 기자

# LG디스플레이 직원 290명 중국 광저우 특별입국 허용

현지 도착 후 일정기간 격리 대형 OLED 패널 생산 지원

LG디스플레이 직원 290여명이 중국으로 특별 입국한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최근 LG디스플레이 직원에 대해 특별 입국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임직원 290여명이 이날 오전 인천공항에서 중국 광저우 바이윈 국제공항으로 떠났다.

현지에 도착한 임직원들은 회사가 마련한 별도 격리 시설에서 일정 기간

격리된다. 직원들은 우선 한국에서 음성확인서를 발급받았으며, 격리기간도 최소화하는 내용으로 협의를 진행 중이다.

임직원들은 격리를 끝낸 후 광저우 사업장 양산 준비에 투입될 예정이다. 당초 올 1분기로 예정했던 대형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패널 생산라인을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광저우는 지난 21일부터 입국자에 대해 전면 무료 핵산검사와 14일간 자택 또는 집중 격리를 하고 있다.

/김재웅 기자 juk@

# 한 달새 13兆 증발... 가입자 할권 변액보험의 변심

증시폭락에 13조2181억 빠져나가  
해지하면 손실 커 가입자 진퇴양난  
업계 “회복되길 기다리는 수 밖에”

#. 3년째 변액종신보험에 매달 67만원씩 넣고 있는 김민희(34)씨. 종신보험은 하나쯤 있어야 하고 빨리 들수록 유리하다는 얘기에 박씨는 수익률이 높다고 추천받은 한 생명보험사의 변액종신보험 상품에 가입했다. 하지만 최근 증시가 급락하면서 보험 해지를 고민 중이다. 가입할 당시에는 장이 좋아 수익률이 괜찮았지만 장이 급격히 안 좋아지자 수익률도 덩달아 떨어졌기 때문이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국내외 주식시장이 폭락하면서 변액보험 수익률도 직격탄을 맞았다. 이 때문에 변액보험 해지를 고민하는 가입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변액보험은 중도 해지 시 손실이 큰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 26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 국내 변액보험 순자산은 91조5224억원으로 지난달 23일(104조7405억원)보다 13조2181억원이 빠졌다. 코로나19로 국내외 증시가 폭락하자 한 달 새 13조원 넘게 증발한 것. 코로나19로 지난 한 달 동안 주식시

장은 요동쳤다. 코스피시장에서 지난 19일 주가 급락에 따른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된 데 이어 20일에는 한미 통화스와프를 호재로 주가가 급등하자 반대로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23일 오전에는 코스피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주가 급락에 따른 매도 사이드카가 또 다시 발동됐다. 변액보험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를 주

식이나 채권에 투자해 투자 성과를 보험금에 반영하는 ‘실적 배당형’ 상품이 다. 변액보험에 가입하면 펀드를 선택해야 한다. 주식 비중이 많은 ‘주식형’과 채권 비중이 많은 ‘채권형’, 주식과 채권을 섞은 ‘혼합형’으로 나뉜다. 특히 국내 변액보험 상품의 절반 가까이 국내 주식형·주식혼합형 투자되고 있어 주가 변동에 영향을 크게 받는다. 그래서 변액보험은 주가와 채권 가격이 상승하면 수익률이 높아지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수익률이 낮아지는 ‘양날의 검’ 같은 존재다. 문제는 이렇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는 것. 계속 보유하자니 수익률은 하락하고 있고, 해지하자니 손실이 크기 때문이다. 변액보험 만기가 될 때까지 기초 자산 가격이 회복되기를 기다리는 것 외에는 가입자들이 할 수 있는 선택은 별로 없다. 변액보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변액

종신보험(보장성보험)과 변액연금보험(저축성보험) 대부분 최저보증기능이 탑재돼 있어 투자실적이 악화되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보험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률이 낮게 책정돼 원금손실이 크고 최저보증도 적용되지 않는다. 변액보험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차감하고, 해지 시에는 해지공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업계는 변액보험을 중도 해지할 경우 환급비 손실이 큰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것을 조언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변액보험은 장기적으로 봐야 하는 상품”이라며 “지금 주식시장이 좋지 않아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지만 장이 회복되면 다시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주 기자 hj89@metroseoul.co.kr

# 코로나發 IPO시장 ‘칼바람’ 줄줄이 철회... 이달만 7곳

기업 가치 적절히 평가받기 어려워  
상장은 물론 해외기업설명회도 취소  
대어급도 불투명...시장 위축 불가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상장을 준비하던 기업들이 줄줄이 상장철회를 결정했다. 주식시장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기업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해외기업설명회(IR)도 잇따라 취소되면서 대어급 기업의 IPO도 차질을 빚고 있다. 올해 IPO 시장의 전반적인 부진이 예상된다.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달 들어 기업공개 철회신고서를 낸 기업은 셀코어테크, 메타넷애플렛폼, LS이브이코리아, 에스씨엠생명과학, 노브메타파마 등 5개사다.

최근 1년 동안 철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이 11개라는 점에서 3월에만 5개 기업이 철회신고서를 낸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증시 급락으로 기업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것이 철회 사유로 꼽힌다.

또 화장품소재 전문기업 엔에프씨가 지난 19일 공모주 청약 중 상장 철회를 결정했고, 신약 개발업체인 압타머사이언스도 상장을 미룰 계획을 밝히는 등 코로나19로 상장 절차를 중단한 기업은 총 7개사로 집계된다.

먼저 코넥스 상장사 노브메타파마는 첫 코스닥 패스트트랙 이전 상장기업으로 주목을 받았지만 상장 시점을 미뤘다. 이번 수요예측에서 적정한 가격을 받지 못한 탓이다.

공모를 철회한 기업 중 가장 공모 규모가 컸던 LS EV(이브이)코리아 역시 “최근 주식시장 급락 등에 따라 회사의 가치를 적절히 평가받기 어려운 측면을 고려해 잔여 일정을 취소했다”고 철회 사유를 공시했다.

특히 엔에프씨의 경우 IR과 수요예측을 정상적으로 마무리하고 청약에 나섰지만 청약 2일 차였던 지난 19일 장중 코스피와 코스닥지수가 동시에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는 등장이 급락하면서 상장 계획을 철회했다. 이날 투자 불안 심리가 확대되면서 청약납입이 취소되는 등 혼란을 겪었다.

통상 IPO를 진행하는 기업은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 심사 승인을 받고 6개월 안에 상장해야 한다. 만약 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기업 평가부터 공모 절차를 새로 시작해야 한다. 이 경우 기업의 부담은 두 배가 된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코로나19 상장에 차질을 빚는 기업을 최대한 지원키로 했다.

한국거래소 기술기업상장부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로 IPO 시장이 얼어붙은 것은 사실”이라면서 “거래소는 승인을 받은 기업들이 IPO를 완주하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기업이 상장을 위한 효력 기간 연장을 요구하면 근거를 검토해서 6개월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면서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인 위기인 만큼 기업의 상황을 최대한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상장 계획을 수정하고 있는 대어급 기업도 많다. 최근 코로나19, 유가 급락, 달러 강세 등 삼중고를 겪고있는 현대오일뱅크는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한 만큼 연내 상장은 어려울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바이오 업계 IPO 최대어로 꼽히는 SK바이오팜 역시 증권신고서 제출 일정조차 잡지 못하는 등 상반기 상장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업 설명회가 울스톱되면서 해외 IR이 필수인 대어급 기업은 연내 상장이 불투명해졌다”면서 “올해 상반기 IPO 시장 위축이 불가피해졌다”고 밝혔다. /손엄지 기자 sonumji301@

KB 금융그룹 | 국민의 편에서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깜박하기 쉬운  
초중고 학교납입금!**  
(스쿨뱅킹 카드 납부)

**계좌개설 NO! 잔액관리 NO!**  
**KB국민카드 스쿨뱅킹**  
자동납부하고 혜택 받으세요

**자동납부 신규신청 시 5천원 캐시백 & 자동경품 응모!** (2020.3.2 ~ 4.30)

- **경 품** 1등 (10명): LG푸리카어 공기청정기 (AS3000NPA)  
2등 (20명): 다이슨 슈퍼소닉 헤어 드라이어기 (523953-01)  
3등 (70명): 포인트리 10만원
- **대상** KB국민카드 회원 (KB국민 기업, 비씨 신용카드 제외)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교직원
- **신청방법** KB국민카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KB국민카드 자동납부 고객센터 1577-9900  
KB국민카드 및 KB국민은행 영업점
- **유의사항** 캐시백 지급: 최초 자동납부 다음달 20일 이내 본인카드 결제계좌로 입금  
화환별 1회 지급 (캐시백 또는 경품 지급 이력카드 또는 자동납부 해지 시 제외)  
당첨자 발표 후 7영업일 이내 배송지 확인을 위한 통화 불가 시 당첨이 취소될 수 있음  
본 행사는 KB국민카드의 영업정책 및 제휴업체 사정으로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학교에 스쿨뱅킹 카드자동납부 동의서를 제출하신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해당 학교 행정실에 동의서를 제출해주세요.

**\*신용카드납입은 가계경제에 위협이 됩니다. \*여신금융상품 이용 시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이용 전 확인사항 • 카드 신청 시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부사항은 KB국민카드 홈페이지 (www.kbcard.com)를 참조하시기나 고객센터 (1588-16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KB국민카드**

#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의무화... 무단 이탈시 강제 출국”

## 중수본 해외입국자 관리 강화

무단 이탈자, 경찰 ‘코드제로’ 적용  
“무관용 원칙 따라 즉시 고발할 것”  
유학생 많은 서초·강남 지구책 마련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해외 유입 사례가 늘면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해외 입국자들의 자가격리를 의무화하고 무단이탈시 강제 출국 시키는 내용이 담긴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 ◆무단이탈 격리자, 경찰 출동

26일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기준 확진자 104명 중 해외에서 유입된 사례가 57명으로 집계됐다. 검역단계에서 확인된 건은 30건, 이후 지역사회에서 확인된 건이 27건으로



2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 옥외공간에 설치된 개방형 선별진료소(오픈 워킹스루형)에서 영국 런던발 여객기를 타고 입국한 무증상 외국인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걱정을 키웠다.

박종현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은 이날 “앞으로 자가격리자 무단이탈 시 외국인인 강제 출국 조치하고, 내국인에게 자가격리 생활지원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며 “격리자 무단이탈자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코드제로’를 적용해 긴급 출동해서 이에 상응한

조치를 받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드제로는 경찰 업무 매뉴얼 중 위급사항 최고 단계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 대상 해외 입국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격리지를 무단이탈하는 등 자가격리 의무 위반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시 고발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유학생 등 해외 방문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서초구와 강남구는 지구방안을 마련했다. 서초구는 전일 해외 입국 주민 전원이 귀국 즉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하다.

미국 유학생 가운데 5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강남구도 자가격리를 당부했다. 이날 강남구는 문자를 통해 “미국 유학생, 해외입국자에게 호소합니다. 자신과 가족, 57만 강남구민의 안전을 위해 2주간 자가격리와 유증상 때 검사 바랍니다”라고 호소했다.

### ◆“미국 발생 추이 지켜보겠다”

정부는 유럽에 이어 미국 입국자들도 2주간 자가격리 방침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전원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검역조치는 여전히 고려 중이다.

중대본에 따르면 미국 입국자의 85%는 유학생, 주재원 가족 등의 내국인이

며 15%는 미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나타났다. 입국자를 1만명으로 볼 때 유럽에서 들어오는 확진자는 56.4명, 미주의 경우 8.1명 규모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미주의 경우에도 앞으로의 발생상황, 추이를 보고 유럽 수준의 입국자 관리를 추진할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미국발 입국자 중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내외국인 관계없이 공항검역소에서 시설에 대기하면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 양성 나오면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치료를 받게 된다. 증상이 없는 무증상의 경우에도 내국인 그리고 장기체류 외국인의 경우에는 14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며, 증상이 발생하게 되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 “위생 제품으로 다시 비상”... 화장품업계 실적개선 ‘안간힘’ 코로나에 채용 10% ↓

## 손 소독제 생산라인 보유업체 특수 위생용품, K뷰티 신성장동력 부상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로 위기를 겪는 겪고 있는 국내 화장품 업계가 손 소독제 생산이라는 사업 재편을 통해 매출 부진을 완화하려는 노력을 보인다. 화장품 소비가 침체한 가운데 매출이 크게 늘고 있는 위생 제품 라인업을 확대해 실적을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최근 손 소독제 수요가 급증하면서 손 소독제 생산 라인을 보유한 화장품 OEM 업체들은 밀려드는 주문을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특수를 맞고 있다.

지난달부터 한국콜마는 화장품 공장에서도 손 소독제 생산을 재개했으며 5



(좌측부터) 랩신 ‘V3 새니타이저 젤’, 브이티코스메틱 ‘부비손 골드젤’, 네이처리퍼블릭 ‘핸드 앤 네이처 새니타이저 젤’ 대용량 3종

월까지 주문이 팍 차았다.

코스맥스도 손 소독제 생산량을 최대한 늘렸다. 코스맥스 관계 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손 소독제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000% 증가했다. 이는 과거 신종플루와 사스, 메르스 때보다 판매량이 증가한 수치다.

손 소독제와 같은 위생용품이 K뷰티

업계의 신성장동력으로 떠오르면서 코로나 여파로 소비심리가 위축돼 위기를 겪는 화장품 업계의 회복 가능성을 선사하고 있다.

지난 2013년 브랜드숍 최초로 손 소독제를 출시했던 네이처리퍼블릭은 최근 손 소독제 제품이 베스트셀러 자리매김했다. 코로나 19 확산 전 3개월 일평균

매출과 비교했을 때 3월 일평균 매출이 약 34배 상승한 것으로 드러났다.

애경산업은 코로나19 이후 주목받고 있는 ‘랩신’을 시장에 지속해서 안착시킬 계획이다. 지난해 하반기 론칭한 ‘랩신’의 핸드워시를 비롯해 손 소독제, 위생 마스크 등의 매출이 크게 증가했다.

LG생활건강이 판매하는 손 소독제 ‘ABY 핸드 새니타이저 젤’과 ‘피지핸드 새니타이저 젤’ 역시 판매량이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장품 대기업 아모레퍼시픽까지 올 상반기 손 소독제 브랜드 출시를 앞두고 있다. 아모레퍼시픽에 따르면 아직 브랜드 이름이나 구체적인 출시일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이르면 다음 달 브랜드를 론칭할 계획이다. /조효정 기자 princess@

3월은 기업 채용 공고가 연이어나와 구직자들이 일년 중 가장 바쁜 시즌이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기업 채용 일정이 줄줄이 연기되거나 취소되면서 구직자들은 혹독한 고용한파를 체감하고 있다. 특히 이런 채용 절벽은 경력 채용보다 신입 채용에서 훨씬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사람인이 2020년 주간 자사 사이트 채용 공고(1월1주~3월2주)를 분석한 결과, 해당 기간 중 등록된 채용공고는 전년 동기대비 10.2% 가량 감소했다.

채용공고 감소는 경력 채용보다는 신입 채용에서 두드러졌다. 해당 기간 경력사원 채용은 7.2% 감소했으나, 신입사원 채용 공고의 경우 17.3% 나 줄었다. /한용수 기자 hys@



# “업의 경계 뛰어넘고 신뢰로 위기 극복... 오뚝이 신한!”

〈業〉

**조용병 신한금융회장 연임 확정**  
고객 자산관리 중심... 평가체제 개편  
“경영 효율성·생산성 한층 높일 것”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26일 연임을 확정지었다. 1기 체제에서 ‘리딩뱅크’ 자리를 탈환한 만큼 2기 체제에서는 ‘일류(一流) 신한’으로의 도전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신한금융지주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본사에서 제19기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이사회를 열고 대표이사 회장으로 조 회장을 선임했다.

앞서 신한지주 지분 9% 안팎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과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가 조 회장 연임 안건에 반대 의견을 표했지만 이변은 없었다. 제일교보 주주 등 우호지분이 워낙 탄탄해 조 회장 연임을 포함해 모든 안건이 무난히 주총을 통과했다. 올해 이사회 의장으로는 박철 사외이사(전 한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26일 오전 서울 중구 신한금융 본사에서 제19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신한금융

국은행 부총재)가 선임됐다.

조 회장은 “새로운 3년의 임기를 시작하면서 저와 신화에 거는 큰 기대에 반드시 부응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신한의 리더로서 시장이 인정하고 직원들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일류신한을 만들기 위해 저의 모든 것

을 바치겠다”고 밝혔다.

2기 체제에서 가장 당면한 과제는 신뢰회복이다. 조 회장은 “지난해부터 금융권 전체적으로 투자상품 판매중단 사태가 발생했고, 신한금융 또한 소중한 자산을 맡겨준 고객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 드렸다”며 “고객의 손실을 최소화

하고 사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그룹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투자상품 사태를 뼈를 깎는 자성의 계기로 삼아 고객과 사회로부터 일류신한의 이름에 걸맞는 신뢰를 되찾을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며 “이런 약속이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상품판매에서 고객 자산관리 중심으로 성과평가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고객의 실질적인 가치 증대에 초점을 맞춰 영업을 추진하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장동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업의 경계를 뛰어넘겠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최신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기존에 없던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고, 경영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한층 높일 것”이라며 “신한을 중심으로 최첨단 기술과 폭넓은 지식, 뛰어난 인재들이 융화될 수 있도록 민·관·학 등 업종과 분야를 초월한 폭넓은 개

방성과 유연함을 추구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코로나19 사태로 글로벌 경제 전체가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국가적인 위기 극복에 총력을 다해 기여하는 것이 리딩 금융그룹으로서 최우선적으로 고민하고 실천해야 할 역할”이라며 “벤처·스타트업,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원하는 동시에 소외된 이웃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따뜻한 금융의 온기를 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회장은 “외환위기, 금융위기 등 수많은 난관이 있었지만 신한은 언제나 오뚝이처럼 일어나는 강한 회복탄력성을 바탕으로 역경을 더 큰 도약의 발판으로 만들어 왔다”며 “조직, 상품·서비스, 업무 프로세스 등 그룹의 모든 것을 원점에서 점검해 글로벌 일류 금융사로 도약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 손병환 신임 NH농협은행장 취임

# “디지털 휴먼뱅크 만들 것”

고객 지원 현황 점검으로 업무 시작  
고객 우선, 미래 준비, 전문성 제고

손병환 신임 NH농협은행장이 26일 취임식 없이 코로나19 관련 지원 현황을 챙기는 것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NH농협은행은 이날 손 행장이 제5대 농협은행장으로 공식 취임했다고 밝혔다.

손 행장은 코로나19 감염 예방 차원에서 별도의 취임식 없이 코로나19로 힘든 농업인과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대고객 지원 현황을 점검했다.

손 행장은 이날 직원들에게 발송한 취임인사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고 농업·농촌 지원과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농협은행에 주어진 숙명”이라며 “코로나19가 종식되고 경제가 다시 정상화 될 때까지 어려움에 처한 고객들에게 비울 때 우산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행장은 고객, 미래, 전문성이라는 세 가지 핵심 키워드를 기본으로 ‘고객 우선, 미래 준비, 전문성 제고’라는 경



손병환 NH농협은행장

영방침을 제시했으며, 농협은행을 새로운 디지털 휴먼뱅크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손 행장은 새로운 미래를 위해 함께 지켜가야 할 약속으로 ▲농협 본연의 가치 구현 ▲고객 보호와 가치 제고 ▲디지털 혁신을 통해 초격차 디지털 뱅크 구현 ▲글로벌 사업의 질적 성장 ▲열심히 일하는 조직문화 조성 및 전문성 강화 등 다섯 가지를 제시했다.

손 행장은 “직원들이 진가를 발휘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가까이서 경청하고 옆에 서서 든든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 KB국민은행 디지털 기술력으로 신용리스크 측정

기업여신 자동심사 지원시스템

KB국민은행은 디지털 심사 플랫폼인 기업여신 자동심사 지원시스템(Bics)을 오픈한다고 26일 밝혔다.

기업여신 자동심사 지원시스템은 기업여신 관련 산업 및 업황 정보와 기업의 재무 및 비재무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해 심사가 이뤄지는 시스템이다. KB국민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여신 심사 노하우와 최신의 분석기법 및 빅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 기술력이 반영돼

신용리스크를 측정하도록 설계됐다.

기업여신 자동심사 지원시스템에서는 신용리스크 측정의 정교화를 위해 기업의 신용등급 외에도 대출기간, 담보 및 부실패턴의 보유 여부와 차입금 규모의 적정성 등을 점검한다.

이번 기업여신 자동심사 지원시스템의 도입으로 정보 수집 및 분석 시간을 단축시켜 신속하고 일관된 의사결정이 가능해지고, 직원의 심사 역량을 집중해 리스크 관리의 효율성과 자산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 /안상미 기자

KB금융그룹 | 국민은행 | 금융파트너

## KB증권, 원화만으로 가능한 해외주식을 열다

GLOBAL ONE MARKET

불편했던 해외주식을 국내주식처럼 쉽고 편하게!  
원화 거래로 더 편해진 해외주식,  
지금 글로벌 원마켓에서 만나세요.

**원화 거래로  
편리하게!**

**당일 거래로  
바로바로!**

**완전 수수료  
평생무료!**

[글로벌 원마켓 서비스 신청 시]  
\*일부 통화 한정  
\*국민은행 실시간 매매기준율 환율 적용  
(외환시장 마감시 익일 환율 적용)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19-00260호(2019년1월22일) \*당사는 금융투자상품 등에 관해 충분한 설명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충분한 설명 청취 후 투자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투자상품은 예금보통예금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원금손실의 가능성이 있고,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글로벌원마켓] \*미국 주식수수료 온라인기준 0.25%  
(예도시 0.0013%, 제비용 별도) 일률 적용합니다. \*매체별, 금액별 수수료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외화자산의 경우 환율변동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중도해지시 환전수수료 발생가능 \*글로벌원마켓 가능국가: 미국, 홍콩, 중국, 일본

2020 정기 주총

# 권봉석·배두용 체제 전환 경영 안정 ↑, 신사업 추가



권봉석, 올해 첫 최고경영자 자리 올라  
통신판매·전자상거래 관련 사업 본격화

LG전자가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경영 안정성을 높이는 한편, 새로운 사업 전략을 명문화하며 성장에 고삐를 조였다.

LG전자는 26일 서울 LG트윈타워에서 제18기 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LG전자는 지난해 재무제표 승인과 정관 개정, 이사 선임 등 안건을 별다른 반대 없이 의결했다.

LG전자는 권봉석 사장과 배두용 부사장을 이번 주총을 통해 새로 사내이사로 선임하면서 경영 안정성을 확고히했다. 권 사장은 올해 처음 LG전자 최고 경영자로 올라섰으며, 앞으로 사내이사로도 활동하게 된다. 감사위원을 맡고 있는 백용호 사외이사도 재선임했다.

이에 따라 LG전자 이사회는 권봉석 사장과 배두용 부사장 2인 사내이사 체제로, 권영수 LG 부회장이 기타 비상무이사로 참여하는 형태가 됐다. 사외 이사로는 백용호 교수와 함께 최준근 전 한국휴렛팩커드 대표이사, 김대형 전 GE 플라스틱 아시아퍼시픽 CFO, 이상구 서울대 교수로 구성된다.



권봉석 사장 CFO 배두용 부사장

특히 LG전자는 정관을 수정하고 신사업 추진 의지를 본격화했다. 회사 목적사항에 '통신판매 및 전자상거래 관련 사업'을 추가한 것. 광파오븐과 세탁기 등 가전제품에 사용하는 식품과 세제 등 일반제품을 LG 생규 앱을 통해 판매하거나 중개하는 형태의 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라고 LG전자는 설명했다.

주주 친화 정책도 이어간다. 1주당 배당금을 보통주 750원, 우선주 800원으로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의결했다.

코로나19 사태에도 성장 전략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글로벌 경기 회복이 지연될 전망이다지만, 인공지능과 로봇 등에 투자를 지속하면서 TV 시청 데이터와 콘텐츠 기반 광고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 김준 사장 사내이사 재선임 “전대미문 위기, 극복 최선”



신규사업 안정적 운영 책임자 평가  
김종훈 사외이사 재선임 안건 통과



26일 서울 서린동 소재 SK서린빌딩 수펙스홀에서 진행된 SK이노베이션 제13기 정기주주총회에서 김준 SK이노베이션 총괄 사장이 발언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

SK이노베이션이 위기 상황 속에서도 다시 한 번 극복 의지를 내비쳤다.

SK이노베이션은 26일 오전 서울 서린동 소재 SK서린빌딩 수펙스홀에서 '제13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글로벌 경기침체 및 주요사업 상황 악화로 어려운 경영환경에도 기존 사업의 본원적 경쟁력 강화와 신규사업의 의미 있는 진전으로 1조2693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했다.

김준 SK이노베이션 총괄사장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글로벌 경기침체와 함께 주요 제품의 수요감소가 예상되는 등 경영환경 불확실성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회사 설립 이래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해온 차별화된 DNA를 갖고 있는 만큼, SK이노베이션 모든 구성원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전대미문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주총회에서는 김준 사내이사, 유정준 기타 비상무이사 및 김종훈 사외이사 선임 안건이 원

안대로 통과됐다. SK이노베이션 이사회 내 인사위원회는 김준 총괄사장을 사내이사에 재선임하는 안건과 관련,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배터리·소재사업 등 신규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함께 기존 사업 가치 극대화를 통해 위기상황을 타개하고 SK이노베이션을 다시 도약시킬 책임자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김종훈 사외이사는 외교·통상 전문가로서 풍부한 경험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글로벌 성과 창출을 위한 의사결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며 사외이사에 재선임됐고, 감사위원으로도 선임됐다. 또한 구성원과 이해관계자의 행보를 경영철학에 반영한 개정 SKMS와 사업목적 신설 등 내용을 반영한 정관 일부 개정 안건도 통과됐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

# 박정호 “코로나19는 IMF급 위기… 자회사 IPO 연기”

(SK텔레콤 사장)

(SK브로드밴드)



박정호 사장이 SK텔레콤 본사 사옥 4층 수펙스홀에서 주주들에게 경영성과, 사업비전을 설명하고 있다. /SK텔레콤



이통사 최초 온라인으로 진행  
“실물 금융경제 예정보다 차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금융위기, IMF 위기와 비교되는 중대한 상황이 예견됩니다. 올해로 계획됐던 자회사 기업공개(IPO)는 1년 정도 순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6일 오전 10시 서울 을지로 T타워에서 진행된 '제36기 정기주주총회'. 인터넷으로 생중계된 주총 현장에서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이 글로벌 경제를 강타한 코로나19로 인해 자회사 IPO

일정 연기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 사장은 현장에서 SK브로드밴드의 IPO 계획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 “도시바 메모리 투자도 올해 상반기 IPO를 계획했지만 내년으로 넘어갈 것 같다”며 “코로나19 사태가 전세계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지 지켜보겠지만 실물 금융 경제에서 예정보다 더 차질이 생길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박정호 사장은 이날 주총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영향으로 해외 출국자가 줄어들며 회사 로밍 사업이 타격을 입었다고 설명했다. 보안 사업 역시 코로나19 영향으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들이 보안 상품을 해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사장은 커머스 사업도 온라인 거래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지만 생활 필수품 증가에 만 그쳐 전체적으로는 '마이너스'라고 말했다.

올해 SK텔레콤은 이통사 최초로 '온라인 주주총회'를 열어 시간적·거리적 제약 조건으로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주주들이 PC나 모바일을 통해 경영진과 소통할 수 있도록 했다.

주주들은 이날 온라인을 통해 궁금한 사항을 질의했다. 온라인으로는 그간 지속적으로 논의돼 온 지배구조 개편에 관한 상황에 대한 질의가 접수됐다. 이에 박정호 사장은 “물적 분할, 인적 분할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있지만 통신 사업에서 벌어들이는 사업 구조 외에 반도체나 미디어, 보안, 커머스, 광고 등 성장세가 주식 가치에 제대로 반영이 안됐다”며 “듀얼 OS 시스템을 통해 최적의 구조를 만드는 노력을 해 지배구조개편이 생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SK텔레콤은 박정호 사장을 사내이사로 재선임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

# 첫 날 1만대... '올 뉴 아반떼' 흥행 신기록

6세대 사전계약 보다 9배 많아  
코로나19에 소비 위축 속 선전

만대를 돌파했다. 1세대 엘란트라부터 이번 7세대까지 역대 아반떼 중 최대 기록이다.

현대자동차의 스테디셀러 '올 뉴 아반떼(사진)'가 사전계약 시작 하루 만에 1

현대차는 25일부터 전국 영업점을 통해 사전계약에 들어간 '올 뉴 아반떼'의 첫 날 계약대수가 1만58대를 기록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기준 아반떼 한달



평균 판매대수 5175대의 약 두 배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6세대 아반떼 첫날 사전계약 대수 1149대의 약 9배에

가까운 수치다.

특히 전세계적인 SUV 열풍으로 인해 최근 5년간(2015~2019년) 국산 준중형 세단 수요가 무려 32%나 감소한 시장 상황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된 가운데 달성한 것이어서 의미가 적지 않다.

실제로 '올 뉴 아반떼'는 '파라메트릭 다이내믹스' 테마를 바탕으로 정교하게 깎아낸 보석처럼 입체적으로 조형미를 살린 외관 디자인과 운전자 중심 구조로 설계된 내장 디자인이 어우러져 고객들의 호응을 이끌었다. 여기에 탑승

자뿐만 아니라 보행자까지 세심히 배려하는 최첨단 안전장치를 상당 부분 기본 적용한 것에 대한 호응도 높았다.

국내 준중형 세단 최초 적용된 전방 충돌 방지 보조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시 맞은편에서 다가오는 차량과 충돌 위험이 있는 경우 및 전방의 차량, 보행자, 자전거 등과 충돌 위험이 감지되는 경우에 자동으로 제동한다.

또 차로 변경 시 후측방 차량과 충돌 위험이 감지되면 경고음과 차량 제어를 돕는 후측방 충돌방지 보조(BCA), 후진 주차·출차 시 후방 장애물 인식 및 제동을 돕는 후방 주차 충돌방지 보조(PCA) 등을 탑재해 고객들의 기대 수준을 만족시켰다.

/양성운 기자 ysw@

현대모비스

美서 '루프에어백' 주목

현대모비스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루프에어백의 안전성 효과가 주목 받고 있다. 현대모비스는 미국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현대모비스의 루프에어백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NHTSA는 지난 1월, 미국 자동차공학회(SAE)가 주관하는 정부, 산학 연계 기술 세미나에서 루프에어백에 대한 평가 관련 자료도 함께 공개했다.

현대모비스의 루프에어백은 차량 전복 사고 시, 후방에서 전방으로 전개돼 0.08초만에 루프면 전체를 덮어 승객을 보호하는 장치다.

/양성운 기자

**One Shinhan**  
고객을 위한 하나의 신한

**Shinhan**  
미래를 함께하는 따뜻한 금융

신한두드림스페이스에서  
청년의 꿈과 열정을  
키워드립니다.

“청년취업의 꿈이  
꿈에 끝나지 않도록”

# 신한은행이 「취업은행」이 되어드립니다

신한은행의 차별화된 일자리 지원 플랫폼-

신한두드림스페이스에서

청년 취업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 드립니다.

신한의 따뜻한 금융이 청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신한 **두드림** 스페이스 | 취업교육

유망 스타트업 CEO의 노하우 공유와 직무역량교육 전문강사의 1:1 맞춤형 취업준비지원 및 유망 스타트업과 연계한 맞춤형 면접까지 지원하는 '두드림매치메이커스'를 운영합니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 총 730명이 교육이수를 통해 자신들의 꿈과 열정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동행  **신한은행**



강종오 LG유플러스 모빌리티사업담당 상무(오른쪽)와 김응수 켄트로닉스 자율주행사업부문장 전무(TV속 왼쪽)가 원격회의를 통해 세종시 자율주행 실증 사업에 대한 업무협약을 맺고 있다. /LG유플러스

LGU+-켄트로닉스사, 자율주행 기술 협력

“상반기 내 저속 셔틀 실증”

원격회의 통해 실무협의단 등 합의 내달 중 관련 품질시험·인증 마무리

LG유플러스가 지난해 8월 세종시와 자율주행 서비스 활성화 MOU를 체결한 데 이어 켄트로닉스와 기술 실증 사업에 나선다.

LG유플러스는 켄트로닉스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자율주행 셔틀 서비스 실증 사업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7월부터 세종시와 함께 추진해 온 자율주행특화도시 조성 사업의 일환이다.

양사는 25일 LG유플러스 용산 본사와 켄트로닉스 판교 본사를 잇는 원격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실무협의단 구성·운영 등 세부적인 협력방안을 마련해나가는 데 합의했다. 궁극적

으로 주거단지를 저속으로 주행하는 자율주행 셔틀 실증을 목표로 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LG유플러스는 세종시 자율주행 서비스를 위한 5G 통신망, 다이나믹 정밀지도, 고정밀 측위(RTK·차량 위치 cm단위 측정) 솔루션 제공 등의 역할을 맡는다. 주거단지 연계형 저속 자율주행 셔틀 서비스 실증 과제의 주관사인 켄트로닉스는 V2X(차량·사물 간 통신) 관련 기억장치와 애플리케이션 등 기술 지원을 한다.

양사는 조만간 자율주행 셔틀 서비스 운영을 위한 시스템 개발·검수를 마치고, 내달 중 관련 품질시험과 인증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세종시는 이르면 상반기 주거단지에서 자율주행 저속 셔틀 서비스 실증 운행에 돌입할 수 있게 된다.

/김나인 기자 silkini@

LG헬로비전-강원테크노파크 MOU

이모빌리티 통합관제 플랫폼 구축 ‘시동’

지역 내 첨단 산업 다각화 등 협력

LG헬로비전과 강원테크노파크가 황성 첨단산업 클러스터 입주 기업을 위한 이모빌리티 통합관제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이모빌리티란,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전기차 등 전력을 동력으로 활용하는 이동수단을 말한다.

LG헬로비전은 강원 테크노파크와 이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한 상호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모빌리티 통합관제 플랫폼을 구축하고, 강원도가 산업 거점으로서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힘을 모은다는 계획이다.

LG헬로비전 영서방송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LG헬로비전 영업그룹장 강명신 상무, 강원 테크노파크 김성인 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측은 ▲이모빌리티 연동 표준 마련 ▲통합관제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지역 내 첨단 산업 다각화 등의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김나인 기자

“월 87만원에 전기차 자유롭게 이용하세요”

(니로·쏘울)

기아차 전기차 구독서비스 ‘기아플렉스 EV 라인’ 론칭

기아자동차가 니로·쏘울 전기차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전기차 전용 구독 서비스 ‘기아플렉스 EV 라인’을 선보인다.

26일 기아차에 따르면 ‘기아플렉스 EV라인’은 월 단위 요금 87만원(부가세 포함)을 지불하고 니로 전기차 또는 쏘울 전기차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추가로 카니발 하이브리드를 월 1회 72시간 대여할 수 있는 기아차 최

초의 전기차 구독 서비스다. 서비스는 26일부터 실시한다.

또 기아차는 업계 최초로 전기차 무제한 충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옵션 상품을 마련하고, 이를 월 6만9000원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 전기차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충전 부담을 낮췄다.

‘기아플렉스 EV라인’은 모바일 앱을 설치한 후 이용할 수 있으며, 앱을 통해 계약-결제-예약-배송-반납의 모든 과정을 한번에 진행할 수 있어 빠르고 간편하게 이용이 가능하다.

/양성운 기자 ysw@

기업형 메신저·화상회의·전자결재·클라우드 플랫폼...

IT기업, 中企에 원격솔루션 지원

삼성SDS

‘넥스오피스 메신저’ 6개월 무료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교육기관·중기에 무상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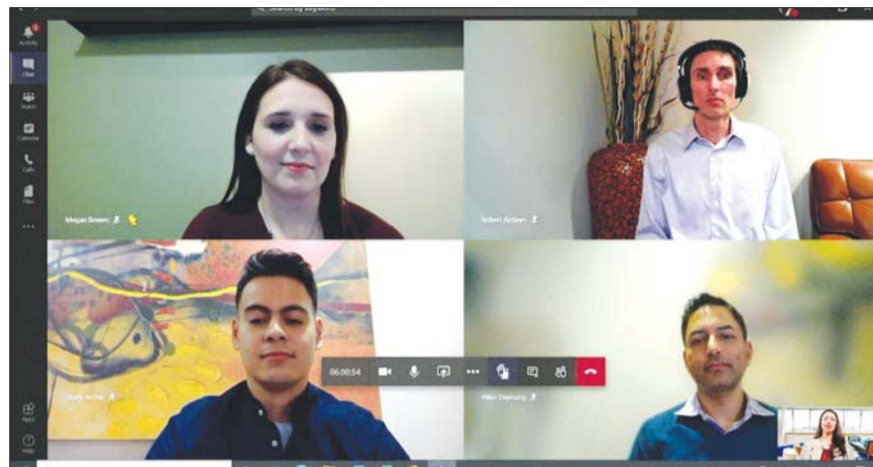
구글 ‘G스위트’ 6월까지 무료

네이버 ‘라인웍스’ 등 무료 배포

코로나19장기화로 재택근무를 도입하는 회사가 많아지면서 IT 기업들이 각종 기술과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26일 IT 업계에 따르면 삼성SDS는 재택근무와 원격 협업을 위해 전 세계 삼성 임직원이 사용하고 있는 자사의 기업형 메신저 ‘넥스오피스 메신저’를 6개월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넥스오피스 메신저는 실시간 채팅과 함께 다자간 영상회의, 순위순 화면 공유 등이 가능하며 대화 암호화, 비밀 대화, 발신 취소 등 다양한 보안 기능 제공으로 취약할 수 있는 재택근무 환경에서 기업 정보의 노출을 최대한 방지한다. 4월 30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무료 사용 기간 후에는 기존 가격인 월 5500원에서 55% 할인한 2500원으로 1년간 제공한다.

마이크로소프트(MS)는 기업용 협업 솔루션인 ‘팀즈’를 교육기관과 중소기업에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팀즈를 통해 채팅, 화상 회의, 전화, 문서 공동작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로 협업하는 모습.

/마이크로소프트

업 등을 진행할 수 있다.

구글도 원격 G 스위트 및 교육용 G 스위트 고객에게 화상회의가 가능한 G 스위트의 행아웃 미팅 기능을 오는 6월까지 무료로 제공 중이다. G스위트는 구글의 주요 소프트웨어를 담은 유료 서비스로, 화상회의, 실시간 공동작업을 이용할 수 있다. 일반 고객은 14일간 무료체험 가능하다.

네이버는 화상회의와 전자결재 등 비대면 업무 지원을 위해 네이버의 협업 솔루션인 ‘라인웍스’와 원격 근무를 위한 그룹웨어 ‘워크플레이스’를 6월까지 무료로 배포한다.

또한 네이버 비즈니스 플랫폼(NBP)은 자사 클라우드 플랫폼을 사용하는 중소기업 1만3000여곳(월 이용 요금 기준 200만원 이하)을 대상으로 3~4월 서

비 비용을 50% 인하해주기로 했다.

카카오페이는 3월 11일부터 6월 말까지 오프라인 결제 가맹점에 ‘카카오페이머니’로 결제된 금액에 대한 수수료를 전액 지원한다.

이스트소프트는 재택근무 시 활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협업 플랫폼 ‘팀업’을 6개월간 무상 지원한다. 팀업은 업무용 메신저, 그룹 피드, 클라우드 저장, 쪽지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빅데이터 플랫폼 기업 아이지에이웍스는 중소 스타트업들을 대상으로 모바일 마케팅 통합 솔루션 ‘에드브릭스’와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모바일인텔스’를 제공하며 중소기업 마케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지원에 나서고 있다.

/구서윤 기자 yuni2514@metroseoul.co.kr

LS그룹, 글로벌 사업에 전 계열사 역량 집중

“조직·인력 현지화... 해외사업 효율 극대화”

Advertorial Corner

케이블분야 최고 기술력 토대로 美·폴란드·베트남 등 공격적 투자 “해외시장 개척에 그룹 미래 달려”

LS그룹의 전 계열사가 함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글로벌 사업에 주력하고 나섰다.

LS그룹은 26일 중국, 아세안 등 성장잠재력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올해 그룹 차원의 지역전략을 수립해, 현지 진출한 계열사들 간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협력·지원하는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구자열 LS그룹 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연내달 성해야 할 제1의 목표에 대해 “글로벌 사업의 조직과 인력을 철저히 현지화하고 해외 사업의 운영 효율을 높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목표달성의 일환으로 LS전선은 아시아를 넘어 전세계 균형성장을 강조한 ‘2030 글로벌 비전’을 발표했다. 해외에서 새로운 활로를 찾기 위해 조직 내 글로벌사업본부를 신설하고 북미·유럽·동남아 진출을 꾀하는 등 해외시장 개척에 그룹의 미래를 걸겠다는 의미다.



LS전선 동해사업장에서 HVDC 케이블을 운반하고 있다.

/LS전선

실제 올해 LS그룹에서 승진한 신규 임원들 중에는 LS전선의 인도 법인장, 해저 글로벌 영업부부장, E1의 해외영업부부장, 트레이딩 부부장 등 각 회사에서 해외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인사들이 많다. LS그룹은 올해 전 세계적으로 시장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전력인프라·스마트에너지·디지털 전환 분야에서 핵심 기자재 및 기술 공급과 해외 투자 확대 등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LS 주요 계열사들은 글로벌 기업들이 선점하고 있는 초전도케이블, 마이크로 그리드, 초고압직류송전(HVDC) 등 시장에서 에너지 효율 기술 상용화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LS전선은 초고압·해저·초전도 케이블 분야 최고의 기술력을 토대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폴란드·베트

남·미얀마 등에 활발히 투자하며 해외 진출을 통한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아울러 LS전선은 2018년 글로벌 ESS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북미 최대인 미국 파커 하니핀의 EGT 사업부 생산 설비 및 인력 등 유무형 자산 일체를 인수하는 영업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LS전선은 전남 영암군에 구축되는 총 설비용량 93MW급 ESS 연계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 사업자에도 선정돼, 지난해 6월 대명에너지 본사에서 1848억원 규모의 EPC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또 다른 계열사인 LS니코동제련은 4차 산업혁명 흐름에 대응해, 제련 공정에서 발생하는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제련 효율을 최적화하는 스마트팩토리 구축에 나서는 등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



# RP 매입에 한숨 돌린 증권사... 마진콜 등 우려 날렸다

정부 경기 부양책에 유동성 확보 대형사 중심 증권주 다시 반등세

코로나19 2차 시장상황 예단 못해 실적 악화, 높은 CP금리도 우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지수 급락으로 유동성 위기에 처했던 증권사의 숨통이 트였다. 수 십 조원에 달하는 주가연계증권(ELS) 거래 비용 부담이 우려보다 축소되면서다. 채권안정화기금을 통해 단기시장에 돈이 풀리기 때문이다. 단기 조달시장이 위축되며 ELS 운용에 필요한 증거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다만 리스크가 남아있는 만큼 안심하긴 이르다는 분석이다.

### ◆ 단기 수혜주? ... 증권주 반등세

대형사를 중심으로 증권주가 다시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한미 통화스와프(맞교환) 계약 체결과 글로벌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증시 반등을 시작한 24일부터 26일까지 3거래일 동안 KRX 증권지수 등락률은 각각 13.30%, 17.24%, -0.61%를 보였다. 이틀연속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관련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업종지수 중 가장 큰 폭의 상승을 기록하다 부담으로 작용한 듯 소폭 꺾였다. 이 기간 KRX 증권지수 상승률은 16.52%로 코스피 지수 상승률

(4.74%)의 네 배 가까이 웃돌았다.

이 같은 증권주의 강세는 당장 필요한 자금줄이 생기며 유동성을 확보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손실을 막기 위해 헤지(위험회피)를 걸어놓은 ELS에 대규모 마진콜(증거금 부족) 사태가 발생하며 '도산' 가능성까지 나왔으나 당장 숨을 돌렸다.

ELS의 기초자산인 글로벌 주요 지수들이 급락하며 자금난에 직면했으나 정부가 24일 100조원 규모의 금융정책을 발표하면서다. 기업어음(CP)과 환매조건부채권(RP) 등 급하게 현금 확보에 나서던 증권사가 단기자금시장에 7조원을 투입했다.

정책적 호재도 이어졌다. 한은은 이날 오전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RP 무제한 매입을 발표함과 동시에 공개시장 운영 대상증권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은이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사들여 금융회사에 자금을 공급하고 일정 기간 후에는 다시 그 채권을 해당 금융회사에 환매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액공급방식은 과거 외환위

기나 금융위기 때도 실시하지 않은 '과격적'인 지원책으로 평가된다. 한은은 오는 6월 말까지 매주 1회씩 정례적으로 한도 없는 전액공급방식의 RP 매입을 통해 시장의 유동성 수요 전액을 제한없이 공급할 계획이다.

환율 안정세도 긍정적 요소다. 단기 자금을 달러로 조달해 증거금을 납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강승건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마진콜 규모가 예상 손실 규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채권 시장안정화펀드(채안펀드)와 한·미 통화스와프를 고려할 때 유동성 부담은 해결 가능한 문제"라고 밝혔다.

### ◆ 유동성 위기 한숨 돌렸지만...

그렇다 증권사는 아직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 역사적인 글로벌 증시 폭락이 반복되며 자체적인 모멘텀보다 시장 변수에 영향을 받는 일이 되풀이됐기 때문이다.

26일 코스피 시장에서 한국투자증권 모회사인 한국금융지주는 전 거래일보다 1800원(3.73%) 하락한 4만6400원에 마감하며 전일의 폭등(25.35%)을 멈춰

다. 이 외에 KB금융(2.81%), 미래에셋대우(1.80%), NH투자증권(-1.21%), 삼성증권(-2.01%) 등 이틀 연속 큰 폭으로 상승했던 다른 대형사 주도 혼조세를 보였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만기도래에 따른 유동성 리스크 문제에선 한숨 돌렸지만 타사들도 ELS 운용손실 악화로 인한 1분기 실적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코로나19라는 전무후무한 사태로 시장 상황을 쉽사리 예단할 수 없는 만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높은 CP 금리도 우려로 꼽힌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전날 신용평가등급 A1 등급 CP 91일물 금리는 연 1.87%에 마감했다. 6거래일 연속 상승 중이다. 강승건 연구원은 "증권사들의 대규모 자금 조달로 CP금리가 올라 조달비용이 증가하는 등 단기 스왑레이트가 크게 악화됐다"고 설명했다.

단기자금 사정을 해결해야 하는 것 역시 남아있는 숙제다.

/송태화 기자 alvin@metroseoul.co.kr

## '노후 주택 갈아타자'... 부산 부동산 시장 활기

노후 주택 많아 신규 아파트 관심 쌍용 더 플래티넘 해운대 226 대 1

최근 침체상태였던 부산지역 신규 분양아파트가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다. 당초 부산은 지난해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며 단기 과열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조정대상지역 해제 후 첫 분양 단지였던 해운대구의 '센텀 KCC스위첸'은 268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1만 8160건이 접수되며 평균 67.7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부산 시내 최고 청약성적이었다. 이밖에 지난해 11월 분양한 부산진구의 '서면롯데캐슬엘투체' 역시 평균 경쟁률 42.82대 1을 기록했다.

그러나 한풀 꺾이는 분위기였다. 하락세는 가격, 거래량에서도 드러난다. 부산의 아파트값은 3월 두번째 주 0.



'포레나 부산 덕천' 조감도.

02% 하락했다. 이는 지난 11월 8일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발표된 후 처음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올 들어 거래량도 지난해 12월 1만6419건에서 1월 1만1037건, 2월 8456건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다.

신규 분양시장은 활기다. 이달 북구 '한화 포레나 부산덕천'은 169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1만4920건이 접수

되며 평균 88.2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덕천2-1구역 재건축사업을 통해 공급된 구도심 내 신규 단지로 갈아타기 수요가 높았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달 해운대구 '쌍용 더 플래티넘 해운대' 역시 88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1만9928건이 접수돼 평균 226.4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쌍용 더 플래티넘 해운대는 지하 4층~지상 20층 2개동으로 아파트 152가구(84㎡), 오피스텔 19실(84㎡)이다.

부산 분양시장에서 수요가 많은 이유 중 하나는 갈아타기 수요라는 분석이다. 부산은 노후 주택비율이 높아 새 아파트로 갈아타고자 하는 수요자들이 많다는 부동산114 자료를 보면, 2월 중순까지 부산에 입주한 아파트는 80만351가구로 이 중 입주 20년 이상(2000년 이전 입주)된 아파트는 39만127가구, 48.74%를 차지했다. 이는 서울(46.93%)이나 전국 평균 노후아파트 비율(42.37%)보다 높은 수치다.

부산 내에는 여러 곳의 정비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점이다. 정비사업이 실현되는 지역은 각종 인프라 등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되는 경우가 많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건설사들도 분양 준비를 서두르는 모습이다.

/이규성 기자 peace@



26일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꽃 선물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해 프라자아 꽃을 들고 웃음을 짓고 있다. /한국거래소

### 정지원 KRX 이사장 '꽃 선물 캠페인' 동참

화훼농가 돕기 일한 참여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26일 화훼농가를 돕기 위한 '꽃 선물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번 캠페인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농가를 돕기 위해 박원순 서울시장의 제안하며 시작됐다. 참여자가 다음 참여자를 지명하는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된다.

정 이사장은 나재철 금융투자협회 회장의 추천을 받아 참여했다. 선택한 꽃은 마음을 안정시키고 머리를 맑게 해주는 향기를 지닌 노란 프라지아.

그는 "일상의 회복과 건강을 염원하는 의미를 담았다"고 웃어보였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때문에 졸업식과 입학식 등 봄철 행사가 취소돼 화훼농가가 고충을 겪고 있다"며 "전염병의 불안과 공포에서 잠시 벗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돌아보며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희망의 의미를 담은 꽃과 함께 따뜻한 위로와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다음 캠페인 대상자로 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 정재송 코스닥협회 회장, 김근호 코넥스협회 회장을 지명했다.

/송태화 기자

## 삼성 주식은 삼성증권에서?... 비대면 계좌 폭증

한달 간 비대면 계좌 10만개 개설 신규고객 중 68% 삼성전자 매매



최근 '동학 개미운동'이란 신조어가 나올 만큼 삼성전자를 사들이는 개인투자자(개미)가 급증하고 있다. 최근 한달 동안(2월 24일~3월 25일) 개미는 총 5조7824억원어치의 삼성전자 주식을 사들였다. 우선주를 포함하면 6조6000억원이 넘는 순매수세다.

이같은 움직임에 삼성증권이 태어난 수혜를 받고 있다. 주식 투자를 처음해

보는 사람들은 "삼성전자 주식을 삼성증권에서 사야한다"고 인식하고 있어서다. 실제 삼성증권 신규 계좌수가 폭증하고 있고, 삼성증권 모든 부서가 현장 고객대응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26일 삼성증권에 따르면 올해 지점에 방문해 계좌를 개설한 고객이 1만1000명을 돌파했다. 이는 전년 전체 계좌 개설 건수의 절반 수준이다.

비대면 계좌개설도 활발하다. 최근 1개월(2월 24일~3월25) 동안 삼성증권 신규 비대면 계좌는 10만개를 넘어섰다. 비대면이지만 40~50대를 비롯해 전 연령대에서 고르게 개설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 회사 측은 설명했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최근 비대면 계좌 급증은 과거와 달리 이벤트에 따른 증가가 아니라 실제 거래로 이어지는 비중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최근 주식을 잘 모르는 투자자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사려면 삼성증

권을 가야한다"는 인식이 확대된 영향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계좌 개설을 하려는 고객으로 인해 일부 지점은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 고객만 수백명이라는 후문이다.

실제 삼성증권이 신규비대면 고객의 3월 주식거래를 분석한 결과 전체 61%가 삼성전자를 한 번이라도 매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기간 지점으로 유입된 신규고객 중 68%가 삼성전자를 매매한 것으로 집계됐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여러부서가 높아진 투자자들의 관심으로 현장 고객대응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더 자세한 데이터는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손임지 기자 sonumji301@

# 중세의 은행 IBK, '비 올 때 우산 펼 수 있나' 시험대에

내수 침체 장기화로 기업리스크 ↑  
원리금 1개월 이상 연체 기업 증가  
기업은행 중기대출 점유율 22.6%

은행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수출 감소와 내수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기업 대출의 리스크는 커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중소기업 고객 비중이 높은 IBK기업은행의 리스크 관리 능력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코로나19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신규대출과 대출만기 연장·금리우대 등 긴급자금을 지원하고 나섰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도와 은행의 대출부실을 최소화하겠다는 복안이다.



IBK기업은행 서울 을지로 본점. /기업은행

문제는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져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면 은행들의 리스크 관리가 어려워 질 수 있다는 것.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1월 원리금을 1개월 이상 연체한 기업 연체율은 0.51%로 전달 대비 0.05%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대기업은 0.38%로 전달 대비 0.13%포인트 줄었지만, 중소기업은 0.54%로 전달 대비 0.09%포인트 증가했다. 상대적으로 재무구조가 취약한 중소기업이 경기변동에 따라 부실확대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중소기업 대출 비중이 높은 기업은행의 리스크 관리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업은행의 중소기업대출 점유율이 22.6%에 달하는 데다 대출 금액도 매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의 대출잔액은 162조7000억원(7.3%) 증가했다.

그러나 현재 기업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은 평균치를 밑돌고 있는 상태다. 대손충당금은 앞으로 1년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는 대손 비용을 먼저 쌓는 예비비로 부실채권(고정미하여신비율)이 늘어난 만큼 적립해야 한다.

지난해 말 기업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은 89.1%로 시중은행의 평균치

가 120.6%인 점을 감안했을 때 적립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태다. 중소기업대출의 경우 리스크가 커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높여야 하지만, 대출만 늘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더구나 코로나19가 끝나고 이후 기업들의 회복이 더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코로나19가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로 확산하면서 항공, 운수, 서비스업, 제조업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종속된 이후에도 기업의 회복이 더디면 부실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라며 "우선 기업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 하되 리스크가 커지지 않도록 유심히 모니터링 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 주가 방어 나선 정의선, 자사주 817억 매수

〈현대차 수석부회장〉

차 58만1333주, 모비스 30만3759주  
현대차 지분, 0.27%p 늘어난 2.62%  
"불안정한 시장, 책임경영 의지"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이 최근 현대자동차와 현대모비스 주식을 쓸 어담았다.

26일 공시에 따르면 정 수석부회장은 19일부터 25일까지 5거래일간 현대차 주식 405억7000만원, 현대모비스 주식 411억원어치를 장내 매수했다.

총 817억원 규모에 달한다. 현대차는 58만1333주, 현대모비스는 30만3759주에 해당한다. 평균매입단가는 각각 6만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

9793원, 13만5294원이다. 주식 매입 자금은 배당 소득 등으로 마련했다.

이에 따라 정 수석 부회장의 현대차 지분은 0.27% 포인트 늘어난 2.62%가 됐다. 지주사인 현대모비스 지분도 전혀 없었다가 0.32%로 확대했다.

현대차는 정 수석 부회장이 불안정한 금융시장에서 책임경영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현대차 이사회 의장에 선임되는 등 후계 구도를 본격화하고 있던 상황, 일각에서는 지배 구조 개편과 연관이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다.

단, 현대차는 정 수석 부회장의 주식 매입이 지배구조와는 무관한 결정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재용 기자 juk@

## 한진그룹 경영권 분쟁 국민연금, 조원태에 '한표' 오늘 주총 표대결서 유리

사내이사 선임 안건서 '찬성'

국민연금이 한진(家) 장남인 조원태한진그룹 회장(사진)과 장녀 조현아전대한항공 부사장 진영의 경영권 분쟁에서 조 회장 측의 손을 들어줬다. 국민연금은 한진 같은 지분 2.9%를 보유 중이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26일 제8차 위원회를 개최해 오는 27일 열리는 한진칼 주총에서 사내이사 선임의 안건 중 조원태 회장과 하은용, 김신배 후보에 대해 '찬성' 결정을 내렸다.

다만 일부 위원은 조원태 후보와 김신배 후보 선임에 이견을 제시했다.

배경태 후보에 대해서는 적절한 이사회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주주 가치 증대에 적합하다고 보기 어려워 '반대'하기로 했다. /김희주 기자 hj89@



## 마포구 대장주 아파트 한달새 4000만원 '뚝'

마·용·성 아파트매매 포함세  
마포래미안, 이달 13억에 거래  
상암월드컵파크, 전월비 2500만 ↓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의 선두주자였던 서울 마포일대 집값도 주춤하고 있다.

26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2주 연속 포함세를 나타냈다. 강북 주요 인기 지역인 마·용·성은 마포(0.04%→0.03%)·용산(0.02%→0.01%)·성동(0.02%→0.00%) 순으로 상승세가 둔화되거나 제자리를 유지했다. 현재 마포구 아파트 3.3㎡당 평균매매가는 3141만원, 전세는 1676만원에 시세가 형성됐다.

마포구 대장주 아파트인 '마포래미안푸르지오'(전용면적 59.95㎡)는 이번 달 13억원에 거래됐다. 이 아파트는 지난 달 13억4000만원에 팔렸다. 지난 2월 8억9000만원에 팔린 '상암월드컵파크 9단지'(전용면적 84.98㎡)는 3월에 8억6500만원에 거래됐다. 두 아파트 모두 1개월 동안 2500만~4000만원 떨어졌다.

'래미안공덕4차'(전용면적 59.9㎡)는 10억2000만원에 팔렸다. 이 아파트는 지



서울 아파트 가격이 2주 연속 포함세를 나타내고 있다. 마포구 성산 시영아파트 전경. /정연우 기자

난달 11억4000만원에 거래된 바 있다.

반면 호가가 오른 일부 매물들도 눈에 띈다. 싸게는 팔지 않겠다는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급매가 나온 주요 아파트를 살펴보면 래미안1차(전용면적 84.9㎡)는 호가가 13억원이다. 이 아파트는 지난 달 12억원에 거래됐다. 마포자이(전용면적 84.69㎡)는 지난 1월 14억2800만원에 팔린 후 이번 달 15억4000만원에 매물이 나왔다. 성산시영아파트(전용면적 59.43㎡)는 9억1000만원에 매물이 나왔다. 이 아파트는 지난 1월 8억7000만원에 거래됐다.

성산시영아파트는 현재 재건축이 추진 중이다. 지난 1월 1차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해 D등급(조건부재건축)을 받았다. 2018년 재건축을 추진한 이후 2년 만이다. /정연우 기자 yw1964@

## 호반그룹 협력사에 20억 경영안정지원금

건설·산업 협력사 200여곳 중  
대구·경북 지역 우선 선정 지원

호반그룹은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협력사에 20억원을 지원한다.

호반그룹은 26일 서울 서초구에 있는 호반파크 2관에서 협력사 현호건설 심용길 대표에게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 경영안정 지원금(이하 경영안정 지원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영안정 지원금은 호반그룹의 호반건설, 호반산업 협력사 200여개에 총 2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경영안정 지원금은 대구·경북의 협력사를 우선 선정해 각 2000만 원을 지원하고, 공사 진행 현장의 협력사들은 각 1000만 원을 지원한다. 경영안정 지원금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해 오는 4월 초에 지급한다. 건설업계에서는 코로나19 관련으로 협력사에 경영안정 지원금을 전달하는 첫 사례다.



김상열 호반그룹 회장(사진)은 친서를 통해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서로를 믿고 의지하면서 어려운 시기를 이겨낸다면 반드시 새로운 기회가 올 것"이라며 "어려운 시기에 조금이나마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담아 경영안정 지원금을 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호반그룹은 이달 초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10억 상당을 지원했다. /정연우 기자

## 가업승계 전과정 지원 'TAX컨설팅센터'

우리은행, 교육·세미나도 제공

우리은행이 회계·컨설팅법인 EY한영,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제휴하고, 개인 및 법인고객을 대상으로 가업승계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기존에는 가업상속공제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을 상속하는 경우 가업상속재산가액 중 최대 500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했지만, 10년간 지분, 고용, 업종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받아야 한다는 점 때문에 기업인들이 신청을 기피했다. 세법개정으로 올해부터는 사후관리 기간이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돼 고용 및 업종, 자산처분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가업승계제도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은 PB고객부 내



우리은행이 가업승계 TAX컨설팅센터를 오픈했다. /우리은행

'가업승계TAX컨설팅센터'를 운영해 가업승계를 준비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한다.

가업승계 계획수립부터 실행,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며, 차세대 기업인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과 세미나도 제공할 계획이다. 단, 컨설팅을 제외한 세무신고 및 유언장 작성 등은 제휴업체와 별도 계약을 통하여 유료로 이용할 수 있다. /나유리 기자

G  
GROVANA  
Swiss Made Since 1924



## Time is our tradition.

'시간은 우리의 전통'(Time is our tradition)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1924년 탄생된 스위스 메이드 워치, 그로바나(GROVANA)의 모든 제품은  
스위스 텐니켄(Tenniken)에 위치해 있는 자체 공장의 생산라인을 통해 수작업으로 조립되며  
3년간의 국제보증서비스를 제공합니다.

KOI COMPANY Co., Ltd 02)6403-2112 www.grovana.co.kr



BELLEVILLE  
1766.1535

# 中企 42% “석달 못 버텨… 대출↑ 금리↓ 등 착한금융을”

중기중앙회 407곳 대상 긴급조사  
10곳 중 7곳 6개월 이상 힘들어  
김기문, 패스트트랙 대출 도입  
금융권 착한금융 확대 등 당부  
고용 지원금, 이자상환 유예  
금리인하 등 대책 필요 목소리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가운데)이 26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코로나19 위기극복 정책제언'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문제는 '돈'이다.  
코로나19의 피해가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가뜩이나 빈약했던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의 통장 잔고가 더욱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중기중앙회가 지난 17일부터 20일 사이에 전국의 중소 제조·서비스업 407곳을 대상으로 긴급조사를 실시해 26일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10곳 중 4곳은 3개월을 버티기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6개월 이상 감내할 수 없다'는 곳은 10곳 중 7곳에 달했다.

이에 따라 중기중앙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자청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대출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고 원금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 금리인하 등을 통해 경제주체들이 '골든타임'을 놓

치지 않도록 배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착한 입대'에 이어 '착한 금융'도 함께 언급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우리나라 은행 역사를 보면 대기업 거래로 망한 곳은 여럿 있어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거래로 망한 곳은 없었다"면서 "금융기관들이 어려운 시기에 주저없이 자금 지원을 확대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지난 19일 부산·경남지역을 시작으로 전남 서울까지 전국을 순회하며 7차례의 간담회를 열고 지역 소

상공인·중소기업들의 피해상황을 점검한 바 있다.

정부가 선제적으로 마련한 100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책 덕분에 일단 현장에서 큰 시름은 덜었지만 빨리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차질없는 집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간이심사 방식을 운영해 신속하게 처리하는 보증과 마찬가지로 대출도 '체크리스트 심사방식 패스트트랙 대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자금 대출 증가로 유동성이 일시

적으로 부족한 금융기관을 위해 유보금이 많은 대기업들이 은행과 매칭펀드를 조성해 협력중소기업을 지원하면 정부의 힘을 빌리지 않고도 민간 스스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까지 내놨다.

김 회장은 "대기업이 유보금을 활용하고 금융기관이 무이자로 매칭해 자금을 공급, 1~2차 중소기업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앞서서도 많이 시행됐던 것"이라며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료율이 너무 높아 은행 대출이 자까지 포함하면 부담이 크다는 지적과 금융기관이 보증서나 추가 담보를 요구해 대출을 받지 못하고 돌아왔다는 이야기 등 간담회에서 현장의 수 많은 애로가 나왔다"고 전했다.

중소기업 최저한세율 인하(7→5%),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를 상향(3→5%) 등 세금 부담을 줄여 기업들이 급한 불을 끄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근로자의 유급휴업시 기업에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도 소상공인에 대해선 전액 지원, 중견기업에는 80%까지 지원을 확대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지원한도 역시 현행 일 6만6000원(월

198만원)에서 일 7만5000원(225만원)까지 늘리고, 요건도 '1개월 이상'에서 '2주 이상'으로 낮춰 지원 대상을 늘려야한다는 설명이다.

김 회장은 "지금과 같은 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되면 기업들의 가동률이 떨어지고, 실업자가 자동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노사가 같이 살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고용유지지원금"이라면서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모르는 기업들도 많은 것 같아 중기중앙회 차원에서 조만간 소책자를 발간해 적극 홍보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중기중앙회는 또 현재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여행업, 관광숙박업, 운송업, 공연·전시업 외에 다른 업종에도 코로나19 충격 여파가 큰 만큼 수출 제조업, 공예 등 장식용품 제조업, 급식업, 자동판매기운영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등까지 지정을 확대해야한다고 권유했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코로나19가 진정되는대로 범중소기업계 차원에서 전국민 서민경제 살리기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국내 여행가기, 지역 맛집 소개 등 다양한 캠페인 전개를 통해서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 중기부-중진공, 연수원 치료센터로 개방

안산 중소벤처기업연수원  
해외서 입국한 경증환자 사용

'창업의 메카' 역할을 하고 있는 경기 안산의 중소벤처기업연수원이 코로나19 환자들을 위한 치료센터로 쓰인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해외입국자 가운데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은 경증환자를 위해 안산 중소벤처기업연수원 기숙사 시설 등을 생활치료센터로 제공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안산 중소벤처기업연수원은 그동안 청년창업사관학교와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한 각종 연수 장소로 활용돼 왔다.

중진공 조정권 이사장 직무대행은 "중소벤처기업연수원이 인천국제공항 및 수도권과 가까운 지역적 장점을 갖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위치한 중소벤처기업연수원. /뉴스1

추고 있어 이번에 생활치료센터로 개방하게 됐다"면서 "정부와 긴밀히 협조해 '코로나19' 확진자 완쾌를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수원 내 생활치료센터는 보건복지부가 총괄 관리하며 사태가 끝날 때까지 정부 부처 및 7개 유관 공공기관이

합동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센터에는 유럽에서 입국한 우리 국민 가운데 양성판정을 받은 경증환자가 입소해 생활하게 된다. 확진자가 입소해 생활한다고 해도 '코로나19' 전파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입소자는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라 증상이 호전된 이후 24시간 간격으로 실시되는 진단검사서 2회 음성판정이 나오면 퇴소하게 된다.

중진공 박윤식 중소벤처기업연수원장은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교육도 중요하지만 국가적 재난수준인 비상사국에 공공시설을 개방해 '코로나19' 확산방지에 기여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한다"면서 "정부와 안산시, 그리고 중기부와 중진공이 함께 협력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웹케시-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공동마케팅 등 업무 제휴

웹케시는 경리업무 자동화 및 업무 편의 증대를 위해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과 전략적 업무 제휴를 맺었다고 26일 밝혔다.

업무 제휴는 웹케시의 경리 전문 소프트웨어 '경리나라'를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의 8000여 조합 회원을 대상으로 공동 마케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측은 ▲조합 회원사대상 경리나라 마케팅 확대 ▲경리나라 교육장 운영 추진 ▲회원사 대상 교육 및 교육장 운영 등을 위해 협력기로 했다. /김승호 기자

## 한세실업, 밝은 사내문화 위한 캠페인 전개

한세실업은 긍정적인 사내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한 세상 한세인'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업무에만 집중해 둘러보지 못했던 동료들과 친밀감을 높이고, 밝은 사내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기획했다.

캠페인에는 인사하기, 사원증 패용하기 등의 활동이 포함된다. 한세실업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로 침체된 사내 분위기를 쇄신하고 임직원과 함께 긍정적인 기업 문화를 만들어가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캠페인 기획에 직원들 아이디

어가 반영돼 의미를 더했다. 캠페인 포스터는 사내 연구개발(R&D)본부 공모전을 통해 선발됐으며, 표어 또한 '한 세'를 주제로 직원들에게 공모한 결과 물이다. 캠페인은 한세실업 P&C팀에서 주관한다. 한세실업은 2019년 P&C팀을 신설해 직원 고충을 수용하고 사내 분위기를 개선하는 등 임직원 복지 및 근로의식 향상에 힘써왔다. P&C팀은 그동안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생일자 조기퇴근제, 샌드위치데이 휴무, 12월31일 휴무 등의 복지를 제도화해 직원들로부터 호응을 받았다. /김승호 기자

## 중소유통센터, 울산항만공사 동반성장몰 열어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울산항만공사, 대중소기업협력재단과 중소기업 판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울산항만공사 동반성장몰을 오픈했다고 26일 밝혔다.

동반성장몰은 우수 중소기업 제품으로 구성된 상생형 온라인 쇼핑몰로 입점 중소기업은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새로운 채널을 확보할 수 있고 이용고객인 공공기관은 우수한 품질의 중소기업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울산항만공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울산에 있는 중소기업 복지 향상을 위한

'울산항만공사협력사 복지포인트제공사업'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최근 코로나19의 여파로 난항을 겪고 있는 울산시 소재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공사는 내달 중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할 계획이다.

최종 선정된 중소기업에게는 동반성장몰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배정해 지역소재 우수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임직원이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해 충분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승호 기자

## 시몬스 따뜻한 침실 연출 '케노샤' 신제품

시몬스는 라이프스타일 컬렉션 '케노샤'의 베딩 신제품을 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케노샤'는 시몬스 침대가 제안하는 라이프스타일 컬렉션으로 침실 공간을 '시몬스룩'으로 연출할 수 있는 감각적인 디자인의 베딩, 퍼니처, 프래그런스, 베스 컬렉션 등 다양한 아이템을 선보이고 있다.

신제품은 화이트, 베이지 등 차분한 색상과 간결한 직조 방식을 사용해 세련되면서도 산뜻한 느낌을 살렸다. 또한, 특급 호텔의 침구에만 업선되는 최고급 소재만을 사용해 부드러운 촉감과 뛰어난 내구성을 구현했다. '프란시스 큐비츠'는 부드럽고 내구성이 뛰어난 선염 원단에 김업체크 무늬를 적용해 내추럴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제품이다. 잘게 짜인 격자 무늬의 패턴이 베이지 색상과 어우러져 따뜻한 침실 느낌



시몬스가 새로 선보인 케노샤 '프란시스 마르테'를 연출한다.

'프란시스 마르테' 역시 블랙과 화이트 김업 체크 패턴으로 캐주얼한 느낌을 살렸다. 촘촘한 격자 무늬를 적용해 간결하고도 세련된 베딩 스타일을 완성한다. '프란시스 바슈'는 퓨어 린넨 100%의 부드러운 원단 위에 입체감을 살린 독특한 격자 무늬가 침실에 개성을 더한다. /김승호 기자

# 산은·수은, 두산중에 1조 지원

코로나19에 자금시장 경색 '위기' 외화대출 6000억 만기부담 덜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경영위기를 겪는 두산중공업에 신규자금 1조원을 지원한다. 두산중공업은 26일 산업은행·수출입은행과 1조원 규모의 대출 약정을 맺었다고 공시했다.

두산중공업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주)두산에서 두산메카텍(주) 주식을 현물출자 받아 자본을 확충하고, 고정비 절감을 위해 명예퇴직을 하는 등 자

구노력을 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자금시장이 경색되면서 어려움을 겪게 돼 은행 대출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대출은 두산중공업이 수출입은행과 협의 중인 6000억원 규모 해외공모사채 만기 대출 전환 건과는 별건이다. 두산중공업은 4월에 만기가 돌아오는 외화채권을 대출로 전환해달라고 지급 보증을 한 수출입은행에 요청한 상태다.

수은이 이에 응하면 두산중공업은 신규자금 1조원에 더해 외화대출 6000억원 만기 부담도 덜게 된다.

두산중공업 관계자는 "두산중공업은 이번 대출을 발판 삼아 당초 계획하고 있었던 재무구조 개선을 보다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두산중공업은 빠른 시일 내 재무구조 개선활동을 마무리하고 금번 대출금액을 상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두산중공업의 대주주인 (주)두산은 이번 두산중공업의 대출약정에 대한 담보제공을 결정하고 (주)두산이 보유한 두산중공업 보통주식을 비롯한 주식, 부동산 등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대표용 연합정당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與野, 투표용지 순번 전략 '의원 바꾸주기'

비례대표 정당 파견의원 모집 분주

여야가 비례대표 위성 정당에 '의원 바꾸주기'를 하고 있다. 총선 투표용지 기호 순번을 위성 정당과 맞추기 위한 전략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6~27일 지역구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 지역구 후보자 등록이 끝나면 투표용지 기호 순번도 결정된다. 투표용지 순번이 정당별 소속 의원 수를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여야는 비례대표 위성 정당에 파견할 의원 모집에 여념이 없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사실상 비례대표 위성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소속 의원을 파견하는 중이다. 26일 현재 더불어민주당에 파견한 민주당 의원은 모두 7명이다. 이 가운데 비례대표인 심기준·정은혜·제윤경 의원은 25일 의원총회에서 제명을 의결한 뒤 더불어민주당에 보냈다. 비례대표의 경우 의원총회에서 제명을 의결해야 타당으로 이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내 지역구 의원이 4명(이종걸·이규희·이훈·신장현 의원)에 불과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받을 수 없는 상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비

례대표 정당 투표용지에 기록하는 정당 기호 중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는 지역구 현역 5명 이상을 갖거나 직전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3% 이상 득표한 정당만 받을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두 경우 모두 해당 사항이 없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도 26일 오후 9시 의원총회를 열고 미래한국당으로 보낼 비례대표 의원 규모에 대해 논의하고 결정한다. 26일 현재 미래한국당으로 이적한 통합당 의원은 모두 10명이다. 이 가운데 지역구 의원은 8명이다. 다만 통합당 입장에서 투표용지 기호 순서가 미래한국당과 동일하게 2번으로 통일되는 것을 선호해 더불어민주당에 파견되는 민주당 현역 의원 규모에 주목하는 모습이다.

한편, 26일 기준으로 총선 투표용지 기호는 민주당(1번), 통합당(2번), 민생당(3번), 정의당(4번) 등이다. 정당 투표의 경우 민주당과 통합당에서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아 민생당이 1번이 된다. 뒤이어 미래한국당(2번), 정의당(3번) 등 순서로 정해질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에 추가로 민주당 현역 의원이 영입될 경우 정당 투표용지 순번은 달라질 수 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

## ICT 피해회복, 소상공인 지원 등 총력

과기부, 코로나19 3대 TF 운영

KISDI·NIA 등 유관기관 첫 회의 기술료 감면, 민간부담금 완화 등 ICT업계 애로청취·지원대책 마련 통신3사와 취약계층 지원방안 모색



장석영 과기부 과기정책조정관 2차관. /과기부정책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3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정부와 정보통신기술(ICT) 업계가 힘을 모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을 지원하기로 했다.

과기부정책조정관은 26일 장석영 2차관 주재로 'ICT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고 ▲ICT 업계 피해회복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ICT로 경제활력 제고 등 3대 분야별 태스크포스(TF)를 개설하기로 했다.

과기부정책조정관은 지난 2월 코로나19 초기부터 'ICT민관합동 대응반' 회의를 2차례 개최해 ICT 업계 피해상황 점검 및 대책마련을 논의해왔으며, 통신3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와 장·차관 현장방문 등을 통해 소상공인·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이 전 세계적 경제위기로 전이되고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가 가동되는 등 비상경제 상황임을 인식해, ICT 분야 대응체계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TF는 통신3사 CEO 간담회 등과 같이 정부와 ICT 업계가 공동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TF이다. 이 TF는 통신사, 방송사, 인터넷 기업 및 우정사업본부 등과 함께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고민해 조속한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5일 개최된 통신3사 CEO 간담회에서는 통신요금 감면, 중소 단말기 유통점 운영자금 지원, 이자상환 연장, 저소득층 온라인 교육 무상 지원 등의 지원대책이 논의됐다.

ICT로 경제활력 제고 TF는 그동안 통신사의 5G망 등에 조기 투자, 마스크 앱 개발 지원, 데이터-인공지능(AI) 활용 지원, 원격·재택근무 솔루션 지원 등 ICT로 민·관이 함께 위축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TF이다. 앞으로 경제·ICT전문가와 함께 비상경제 상황에서의 ICT 역할과 중·장기적 대응방향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장석영 2차관은 이번 회의에서 "원격근무와 교육 등 ICT를 활용한 비대면 서비스가 우리 경제에 자리잡고 있다"며 "코로나19를 슬기롭게 대처하고, ICT가 경제체질을 개선하며 사회를 혁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채윤정 AI전문기자 echo@

와 방안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장석영 2차관을 반장으로 한 'ICT비상대책회의'와 3대 분야별 TF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또 이를 지원할 유관기관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한국정보화진흥원(NIA),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와 함께 첫 회의를 가졌다.

ICT 업계 피해회복 TF는 코로나19로 인한 ICT 업계의 애로사항 청취 및 지원대책을 수립해 시행하는 TF이다. 이 TF에서는 지난 회의에서 발표했던 기술료 감면, 민간부담금 완화, 대체인증 시간·비용감축 등 지원대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조속한 시일 내 제3차 회의를 개최해 추가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 과기부정책조정관 지역 사이버안전망 구축 정보보호센터 2곳 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역의 사이버안전망 구축을 위한 지역 정보보호 지원센터 2개소를 추가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지역 정보보호지원센터는 과기부정책조정관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지자체와 함께 추진하는 협업모델로 지역의 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경북·충남센터는 6월에 개소해 경북, 충남 지역의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정보보호 현장컨설팅 ▲웹 보안취약점 점검 ▲정보보호 관련 법률 상담 ▲개인정보보호 등을 지원한다. /채윤정 AI전문기자

### 슈퍼컴퓨터 개발 선도사업에 460억 투입

과기부, 4년간 본격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슈퍼컴퓨터 개발 선도사업을 올해부터 2023년까지 460억원 규모로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에는 슈퍼컴퓨터 개발 선도사업에 90억원이 투입된다.

슈퍼컴퓨터는 대용량의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생산·처리·활용 가능한 컴퓨터 시스템으로, 정부는 2011년 제정된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슈퍼컴퓨터 기술 개발을 지원해왔다.

이번 사업은 슈퍼컴퓨터의 핵심인 중앙처리장치(CPU)를 우리 자체 기술로 개발하기 위해 슈퍼컴퓨터 CPU의

하드웨어(HW)와 소프트웨어(SW)를 함께 설계해 개발하는 사업이다.

우선 슈퍼컴퓨터용 고성능·저전력 CPU 및 코어 설계 기술을 확보·운영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및 계산노드를 개발하고, 여러 대의 계산 노드를 연결해 클러스터 시스템 시제품을 개발한다. 또 CPU의 활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개발 초기부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술을 함께 설계하고 슈퍼컴퓨팅 응용 분야에 특화된 CPU를 설계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통해 4년 후 슈퍼컴퓨터 CPU 시제품을 개발하고, 후속 연구를 연계해 슈퍼컴퓨터 CPU 기술 개발을 완성하는 것이 목표다. /김승호 기자 bada@

## 우수중소 '브랜드K' 자금·수출지원 강화

중기벤처부, 확산전략 합동발표 한류 이미지로 영향력 확대키로 'K방역' 활용 바이오·의료분야 추가



오·의료 분야 제품도 추가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수출유관기관과 연계해 제품의 고급화를 촉진한다.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위한 국가 공동브랜드 '브랜드K'를 한류와 연계해 홍보하는 등 '브랜드K'에 대한 정부의 자금·수출 지원이 강화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중소기업 수출 지원을 위한 '브랜드K 확산전략'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대기업보다 브랜드 경쟁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해 '브랜드K'의 추진 방향을 명확히 하고, '브랜드K'의 대내외 이미지를 높여 유망기업의 참여를 확산하고자 마련됐다.

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케이콘(KCON) 등 대규모 한류 이벤트와 국가 주요 행사를 통해 '브랜드K'에 한류 이미지를 입혀 브랜드 영향력을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계기로 주목 받는 'K방역' 이미지를 활용해 '브랜드K'에 바이

처기업진흥공단 등 수출유관기관과 연계해 제품의 고급화를 촉진한다.

또, '브랜드K'의 홍보와 시장경쟁력 강화를 위해 무역협회를 중심으로 민간 전문가와 기업이 참여하는 민간 합동협의체도 운영한다. 협의체는 제품과 브랜드의 전반적인 품질관리와 지적재산권 관련 분쟁 등 사후관리를 책임진다.

중기부는 지난해 12월부터 민간 흡수평가와 수출전문기관의 추천을 받은 유망기업을 공개 모집해 다음 달 중 2기 '브랜드K' 제품을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

브랜드K에 대한 기업들의 호응도 높은 모습이다.

중기부가 앞서 마케팅사업 참여 중소기업 789곳으로부터 온라인 설문 답변을 받는 결과 88.9%가 취약한 브랜드로 인해 영업활동에 제약을 받은 경험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응답기업의 92%가 브랜드K에 참여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김승호 기자 bada@

장기화 되는 온라인 강의에 대학생들 불만 증폭

# “차라리 반수·휴학”... 학생 이탈조짐에 대학들 ‘초긴장’

〈半修〉

서울권 대학들 온라인 강의 연장 한학기 전체 온라인 대체 진행도 등록금 비싼 실습위주 수업 불편 커 “유학생도 감소... 대학 위기감 고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대학 온라인 강의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당초 2주로 예정됐던 온라인 강의 대체 기간이 일부 대학에서는 최대 1학기 전반으로 확대되면서 등록금 환불 요청은 물론이고, 반수나 군대 입대, 휴학을 고민하는 학생이 늘고 있다.

26일 대학가에 따르면, 경희대·광운대·동덕여대·서강대·서울대·서울시립대·숙명여대·숭실대·연세대·이화여대·중앙대·한국외대 등 서울권 대다수 대학이 앞선 온라인 강의 시행 일정에서 2주 추가 연장에 나섰다. KAIST, UNIST 등 일부 대학은 코로나 19가 종식되지 않는 한, 한학기 전체를 온라인 강의로 대체하기로 했다.



연세대에 신종 코로나19 관련 안내 현수막이 걸린 채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대부분 대학이 준비 단계부터 콘텐츠 준비에 열을 올렸지만, 학생들의 불만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개강이 연기되던 시기부터 시작된 등록금 반환 요청은 최근 더 늘고 있다.

특히 다양한 실습 수업이 포함돼 다른 학과에 비해 등록금이 비싼 예체능·이공계 학생들의 불만은 더하다. 실습 위주로 이뤄져야 하는 수업이 온라인으

로 대체되면서 커리큘럼을 소화하는 데 불편도 크다. 서울권 여자대학에서 조소(彫塑)를 전공하고 있는 한 학생은 “전공 특성상 직접 보고 만들며 수업이 이뤄져야 하는데 온라인 강의로 대체되며 강의 효율성이 전혀 없다”라며 “대면 강의 진행이 어려워 실습강의가 불가능하면 실습실 사용료 등 실습에 관련된 비용이라도 돌려줘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환불 가능성을 두고 학생들 간 논쟁이 벌어지고 있기도 하다. 일부 대학 총학생회는 등록금에 관한 학생 민원이 빗발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한 대학 총학생회 관계자는 “대학이 코로나 19로 인한 등록금 환불에 부정적 입장인데, 총학은 도대체 뭐하냐며 일부 학생들이 요구하기도 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학생 입장을 대변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토로했다.

반수나 휴학, 군대로 발길을 돌리는 학생도 적지 않다. 전국대학학생네트워크(전대넷)이 지난달 진행한 ‘코로나 대응 대학가 대책 관련 전국 대학생 긴급 설문조사’에 따르면 코로나 19로 대학생 100명 중 5명이 군 입대 일정 변경을 고려했다.

대학에 적을 두고 다른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반수생이 늘고 있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수험생들이 주로 찾는 대입 정보 카페 ‘수만회’에는 반수를 고민한다는 게시글이 쏟아지고 있다. 이영덕 대성학력개발연구소장은 “개강 연기

로 이전과 다르게 1학기 휴학을 허용하는 대학이 생기면서 반수를 하려는 대학생이 증가하는 분위기”라며 “대학에 휴학 문의, 학원에는 반수 문의가 늘고 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학생들의 불만과 등록금 환불 주장에 대학은 곤란하다. 경기권 대학 한 관계자는 “학생들의 관련 문의가 증가해 대학 홈페이지 내 코로나 19 관련 공지와 문의 게시판을 따로 만들어놓을 정도”라면서 “등록금 환불과 관련한 문의와 불만이 크게 늘어 ‘등록금 환불 규정’ 중 환불 금액 산정 기간을 기존보다 2주 늘리는 방안으로 학생들을 고려해 주기로 했지만, 이를 게시판에 알리자 학생들 문의가 급증해 오히려 게시글을 삭제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고 귀띔했다.

서울권 대학 관계자도 “코로나 19로 이번 학기를 등록한 유학생 수도 반 이상 줄어든 상황에서 학생들의 휴학 문의도 늘어, 대학 재정 악화가 염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 “공부, 게임처럼 즐겁게”... FUN한 교육앱 ‘속속’

코로나에 개학 연기사태 장기화 집콕육아에 맞춰 흥미요소 강화

코로나19 사태로 개학 연기가 장기화되면서 온종일 주로 집에만 머무는 아이와 부모를 겨냥한 교육앱이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하루 종일 어린 자녀와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이른바 ‘집콕 육아’를 이겨낼 수 있도록 게임처럼 즐기며 공부도 할 수 있는 교육앱이 눈길을 끈다.

영어교육 전문기업 윤선생의 ‘스피킹버스’는 기초 회화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뮬레이션 영어 말하기 앱이다. 학습 몰입도를 높이기 위해 롤플레이 게임처럼 흥미 요소를 강화한 게 특징이다. 사용자는 가상 공간 마을을 탐



윤선생 스피킹버스 앱 /윤선생

험하며 다양한 원어민 캐릭터를 만나게 되는데, 캐릭터와 대화를 주고받으며 자연스럽게 영어표현을 익힐 수 있다. ‘토도수학’은 유아부터 초등학교 2학년 수준의 수학 교육과정을 담은 학습 앱이다. 게임 형식으로 쉽게 배울 수 있고, 아이들이 지루할 틈 없는 인터랙티브한 2000여 가지 수학 활동을 제공한다.

‘소중한글’은 국내 최초 일반 한글 교육법 보다 3배 효과가 높은 ‘소리 중심 교육법’을 적용한 한글 교육 앱이다. 소리 중심 교육 원리를 기반으로 제작된 교육 게임을 활용해, 한글 교육이 필요한 아이들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다.

‘레고 듀플로 월드’는 레고그룹이 최근 선보인 미취학 아동을 위한 놀이 교육 앱이다. 아이들이 3D 입체 듀플로 브릭을 활용하면 조립, 탐구, 역할놀이 등 3가지 유형의 창의 놀이를 경험할 수 있다. 앱은 숫자와 기차놀이, 세계 동물 탐험, 구조 모험 등 3가지 테마로 구성되며, 각 테마별 기초수학 학습 및 공간지각능력, 작업기억력 개발을 돕는 다채로운 놀이를 제공한다. /한용수 기자 hys@



한국해양대는 해양산업의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해양 인공지능(AI) 융합전공’ 4개를 대학원에 개설했다. /한국해양대

## 한국해양대, ‘해양 인공지능 융합전공’ 개설

스마트 해양융합 산업 이끌 인재 육성

한국해양대는 학문 간 연계와 융합을 통해 해양산업의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해양 인공지능(AI) 융합전공’ 4개를 대학원에 개설했다고 26일 밝혔다.

한국해양대는 대학원에 공과대학과 해사대학 8개 학과가 참여한 ‘해양 인공지능 융합전공’을 개설하고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

신소재 등 4차 산업혁명 기술로 친환경 스마트 해양융합 산업을 이끌 인재양성을 이번 학기부터 시작했다. 융합전공에 참여한 학과는 공과대학 전자통신공학과, 전기전자공학과, 전자소재공학과, 컴퓨터공학과, 냉동공조공학과, 조선기자재공학과와 해사대학 기관공학과, 기관시스템공학과이다.

4개 융합교육 과정은 신소재, 스마트전장, 친환경, 재해안전으로 학부과정의 스마트선박융합전공과 연계해 운영된다. /이현진 기자

## 삼육대, 비전공자 위한 교육용 코딩키트 제작

삼육대가 누구나 쉽게 코딩의 원리를 이해하고 배울 수 있는 교육용 키트를 자체 제작해 비전공자를 위한 ICT 융합 교육에 활용한다.

26일 삼육대에 따르면, 자체 제작한 교육용 키트는 ‘SU코딩키트 마이크로비트’(이하 마이크로비트 키트)와 ‘SU코딩키트 아두이노’(이하 아두이노 키트) 등 2종이다. 교육부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제작한 것으로, 대표적인 오픈소스 하드웨어 플랫폼인 마이크로비트와 아두이노를 기반으로 각종 장치들을 삼육대의 융합교육과정에 맞게 리팩키징했다.

마이크로비트 키트는 마이크로비트 보드와 스위치, 센서, 조이스틱 등 입력장치, LED, LCD, 릴레이, 스피커, 모터 등 출력장치 등으로 구성됐다. 각종



삼육대 학생들이 SU코딩키트 마이크로비트를 활용해 프로그래밍 기초 개념을 배우고 있다. /삼육대학교

부속장치를 레고 블록처럼 맞추는 블록 코딩 방법을 활용해 프로그램 코딩의 기본적인 개념을 쉽게 배울 수 있다.

아두이노 키트는 아두이노 보드와 다양한 입출력 장치 등으로 구성됐다. 마이크로비트 키트를 통해 코딩의 기본 개념을 익힌 학생들이 실무에서 활용 가능한 C언어를 배울 수 있는 키트다. /한용수 기자

## 김성웅 성균관대 교수 강자성 특성 자석 개발

성균관대는 김성웅 에너지과학과 교수(사진) 연구팀이 강자성 특성을 가진 전자화물 자석 소재를 세계 최초로 합성하고 그 원리 규명에 성공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성웅 교수 연구팀은 2차원 층상구조의 층간의 빈 공간에 독립적으로 위치하면서 고유의 자기 모멘트를 갖는 격자간 음이온 전자의 존재를 규명했다. 또한, 이러한 전자들이 층간에서 주변 양이온과 강한 상호작용을 통해 강자성 특성이 발현되는 2차원 전자화물 자석 소재(Gd2C)를 개발했다. /이현진 기자



## 송실대, 통일교육 선도대학 연속 선정

2년간 年 1억8000만원 지원

송실대가 통일부 주관 ‘2020년 통일교육 선도대학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2016년 통일교육 선도대학 사업이 실시된 이후, 유일하게 연속 선정된 사례다.

통일교육 선도대학 지정·육성 사업은 대학 통일교육의 우수 모형을 개발하고 보급·확산해 대학 사회에 통일 의의를 활성화하고 대학생들의 통일 의식

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송실대는 통일부로부터 2년 간 연 1억8000만원 규모의 지원을 받게 된다.

송실대는 ‘종합형 SSU 통일교육 선도대학 모델’을 통해 ▲필수교육형 ▲학과중심형 ▲연구중심형 ▲선택교육형 등 모든 통일 교육의 유형을 종합해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본 모델의 확산을 통해 통일교육을 이끄는 거점 대학으로 자리매김 할 계획이다. /이현진 기자



# 소중한 사람에게 피로회복을 선물하세요!



대웅 우루사 연질캡슐 360캡슐 대용량 세트

## 팩트까지 생각한다면 역시 우루사입니다

### 팩트1

59년 전통의  
**국내 판매 1위 간장약**

[2018년도 간장약 부문 IMS DATA 기준]

### 팩트2

임상에서 검증된  
**피로회복 효과**

### 팩트3

임상에서 검증된  
**간수치개선 효과**

[임상시험 결과 SCI급 국제임상저널 IJCP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Clinical Practice) 2016년 3월호에 게재]

간 기능 장애에 의한 육체 피로, 온몸 권태에-

## 기준은 팩트! 선택은 우루사!



## UDCA는?

- 간의 노폐물 및 독성물질의 담즙배설을 촉진
- 불규칙적인 생활로 지친 간을 보호
- 간내 혈류량을 증가시켜 신진대사를 높임. 비타민 B1, B2는 피로물질의 축적을 방지

광고상위권 2019-1480-002801

문의: **080-550-8308~9**  
(약국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약제품 판매행위는 불법입니다. \*약다 남은 약, 약국이나 보건소에서 안전하게 수거해 드립니다.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첨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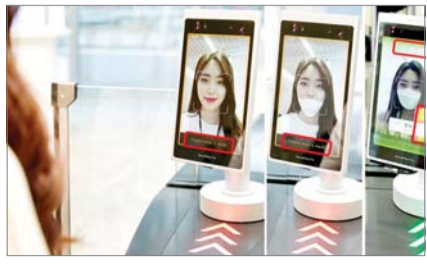
## LG CNS, 마스크 착용 임직원만 출입 허용

얼굴인식출입통제서비스 활용  
신분에 마스크 착용 여부 판단

LG CNS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서울 마곡 본사 일부 출입게이트에서 'AI 얼굴인식 출입통제 서비스'를 활용, 마스크를 착용한 임직원만 통과시키는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26일 밝혔다.

눈, 코 주변 생김새를 집중적으로 분석해 사람을 구별할 수 있는 AI 얼굴인식 기술을 직원 신분을 판독함과 동시에 마스크 착용 여부도 판단한다.

마스크를 쓰지 않거나 턱이나 입에



LG CNS의 'AI 얼굴인식 출입통제 서비스.'

만 걸치는 경우를 모두 분석해 "마스크를 착용해 주세요"라는 문구를 띄우고 게이트를 열어주지 않는다. 열감지 기능을 추가해 체온이 37.3도 이상이라도 입장 불가하다. /구세훈 기자 yuni2514@

## CJ, 스타트업 지원 '오벤터스' 2기 모집

CJ그룹이 차별화된 미래 혁신기술을 확보하고 스타트업의 성장과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CJ는 내달 29일까지 '오벤터스(O!VentUs·Open+Venture+Us)' 2기의 참가 기업을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오벤터스 2기는 우수한 기술

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스타트업·연구소를 발굴해 CJ제일제당, CJ프레시웨이, CJ대한통운, CJENM과 공동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모집 대상은 각 분야에 맞는 기술 및 사업 모델을 보유한 기업이며, 참가 신청은 '이벤터스'에서 가능하다.

/김민지 기자 kmj@

### 코로나19 극복 온정의 손길



LH, 임대단지 아동·청소년 구호물품 지원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가적 위기상황을 함께 극복하고,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임대단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구호물품 후원 및 학습지원 등의 사회공헌 활동을 시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지는 등 심리적·물질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대단지 아동과 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LH



CJ프레시웨이, 코로나 전담병원에 구호물품

CJ프레시웨이는 지난 25일 코로나19 치료에 헌신하고 있는 주요 병원의 의료진을 격려하기 위해 2000만원 상당의 구호물품 3000개를 제작해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구호물품 키트는 CJ프레시웨이 임직원들이 손수 복주머니에 담아 제작한 것으로 의료진들이 언제 어디서든 가볍게 섭취할 수 있는 건강음료와 에너지바 등 간식류 9종으로 구성됐다. /CJ프레시웨이

## 에프앤코, 대구·경북 의료진에 클렌저 등 전달

바닐라코, 비바이바닐라와 컬리스튜디오를 전개하는 에프앤코(F&CO)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고군분투하고 있는 대구 지역 의료진 지원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에프앤코는 25일 대구의료원에 클렌저, 보습크림 등 약 900여개 제품을 기부했다. /조효정 기자 princess@



에프앤코가 대구지역 의료진을 위해 보습크림 등을 기부한다.



김래영 원장의  
건강관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면역력의 중요성이 재차 강조되고 있다. 전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은 '코로나19'는 호흡기 및 소화기 감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질환으로 현재 세계 각국에서 백신이 개발되고는 있지만 아직은 정해진 치료제가 없어 병원에서도 면역력 치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때문에 코로나19를 현명하게 극복하기 위해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은 바로 '자가면역 높이기'다. 인체는 자생능력이 뛰어나 새로운 독소의 유입을 줄이고, 충분한 영양섭취, 충분한 휴식만 취해줘도 스스로 정화작용을 하게 된다.

서양 속담에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이 우리 몸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다. 다이어트도 중요하지만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가 더 중요한 지금이다. 흔히 몸에 좋은 음식 VS 몸에 해가 되는 음식으로 나누곤 하는데, 면역력을 높이려면 특정 음식 한 가지만 집중

## 면역력과 음식

하는 것보다 균형 잡힌 식단 위주로 섭취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예컨대 기름기 많고 지방함량이 높은 고칼로리 음식보다는 신선한 채소와 제철 음식, 싱싱한 수산물, 지방이 적은 단백질, 발효음식 등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

특히 하얗게 정제된 쌀이나 밀가루, 기름, 설탕 등은 당 함유량이 높이는 반면 영양밀도는 낮아 장기간 많이 섭취할수록 비만이나 당뇨 등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 또 흰설탕이나 초콜릿과 같이 가공된 당분은 뇌를 피곤하게 만들고, 체내에 당분이 과다하게 축적되면 염증이 증가하고, 염증이 증가하면 바이러스에 대한 대항능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때 기저질환이 있거나 면역력이 낮은 노년층이라면 떨어진 체력과 원기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보약을 보조적으로 복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겨울철이나 환절기, 면역력 강화에 좋은 대표 보약으로는 쌍화탕, 경옥고, 공진단 등이 있다.

감기 예방과 피로 해소에 도움이 되는 쌍화탕은 기와 혈을 쌓으로 조화롭게 해준다는 의미가 있어 쌍화탕이라 불린다. 백작약, 숙지황, 당귀, 천궁, 계

지, 감초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에서도 천궁, 당귀, 작약, 숙지황은 혈을 보하는 효능이 있어 여성들에게 특히 좋다.

반면 면역력과 원기회복에 좋은 경옥고는 1회의 '고(膏)'를 만드는데 상당 분량의 약재가 들고 만드는 과정도 까다로우며 여느 보약보다 정성이 많이 들어가는 귀한 보약이다. 경옥고는 기와 혈을 고르게 보충시켜 주기 때문에 체질에 관계없이 누구나 복용 가능하며, 특히 무기력증, 갱년기, 만성피로, 두통, 전신질환, 성욕감퇴, 체력저하, 병중병후인 경우 복용하면 더욱 우수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병중병후나 원기회복, 체력보강, 기혈보충, 면역력향상에 도움 되는 한약 처방을 찾는다면 '공진단(拱辰丹)'이 가장 적합하다. 공진단의 주원료인 사향은 사향노루의 사향선을 건조해 얻는 약재로 강심작용을 하고, 막힌 기혈을 뚫어줘 약의 효능이 전신으로 강하게 퍼지게 하는 작용을 한다. 좋은 예후를 위해선 반드시 식약처로부터 수입인증을 받은 사향을 썼는지, 전문 한의사가 직접 제한 것인지 등도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양구정 대자연한의원 원장

## 농심, 백혈병소아암협회에 마스크 2100장 기부

2년 간 백신수 32만명 지원  
임직원 단체 헌혈증 기부도

농심은 임직원과 회사가 함께 모은 소아용 마스크 2100여 장을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에 기부했다고 26일 밝혔다.

농심이 기부한 마스크는 백혈병소아암으로 투병 중인 전국의 어린이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환아들은 항암치료로 면역력이 약해져 평소 생활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필수지만,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구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농심은 지난 2018년부터 백혈병소아암 환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심하고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백신수를 정

기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농심이 지난 2년간 지원한 백신수는 총 32만명에 달한다. 이번달부터는 지원대상을 200명에서 300가정으로 늘렸다.

이외에도 농심은 임직원 단체 헌혈을 통해 헌혈증을 기부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백혈병소아암 환아 돕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농심 관계자는 "백혈병소아암 어린이들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임직원들 사이에서 마스크가 꼭 필요한 이들에게 마스크를 양보하자는 의견이 나와 기부 캠페인을 추진하게 됐다"며 "임직원들이 자녀와 함께 집에 머물거나, 하루 더 사용하는 등 마스크 사용을 아끼며 기부에 동참했다"고 설명했다.

/김민지 기자 kmj@metroseoul.co.kr



농심은 임직원과 회사가 함께 모은 소아용 마스크 2100여 장을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에 기부했다고 26일 밝혔다. 농심이 기부한 마스크는 백혈병소아암으로 투병 중인 전국의 어린이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농심

## 피자헛, 대구 의료진·봉사자에 피자 1000판

한국피자헛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분투하고 있는 대구지역 의료진 및 자원봉사자를 위해 피자 1000판을 기부한다고 26일 밝혔다.

기부는 대구에 위치한 9개 상급병원에 피자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오는 9일까지 10회에 걸쳐 진행된다. 이번 기부에는 피자헛 본사뿐만 아니라 대구지역에 위치한 피자헛 가맹점 14곳이 힘을 모았다.

제공하는 피자는 피자헛의 인기 메뉴인 '리치골드 불고기 피자'로, 포장 박스에 '힘내라 대구', "고생하시는 의료진 감사합니다" 등 감사와 격려를 전



피자헛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분투하고 있는 대구지역 의료진 및 자원봉사자를 위해 피자 1000판을 기부한다. /한국피자헛

하는 메시지를 부착해 함께 전달할 예정이다. /김민지 기자

### 인사

- ◆중소기업중앙회 ◇임원 임명 △경제정책본부장 추문갑 ◇전보 △홍보실장 성기동
- ◆KBS N △대표이사 박중민 △마케팅본부장 겸 부사장 송기훈 △편성제작본부장 이민호

### 부음

▲이옥선씨 별세, 김현철·현석(한라일보 기자)·현진씨 조모상 = 26일 오전 2시5분, 제주 시 부민장례식장 제7분향실, 발인 28일 오전 7시. 장지 제주도 양지공원. ☎ 064-742-5000.

### 배포도우미 모집

강남, 서초지역 근무 010-5241-6694



# 얇아진 옷차림에... 간편 샐러드 찾는 홈트족 늘었다

GS25, 샐러드 18종 이달 매출  
지난달比 48%, 전년비 188% ↑

CU·이마트24도 관련매출 급증  
편의점 업계, 관련 신상품 확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집콕족', '홈트족' 등이 증가하며 간편대용식인 샐러드가 인기를 끌고 있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편의점 샐러드의 매출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난 21일 실내 체육시설에도 2주간 운영 중단 권고를 결정해 운동할 곳을 찾지 못한 다이어터들이 손쉽게 체중 관리를 할 수 있는 샐러드를 찾는 모양새다.

GS25 매출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운영 중인 샐러드 18종의 3월 1일~3월 23



한국야쿠르트 '잇츠온 그린키트' 4종.

/한국야쿠르트

일까지의 매출은 지난달 같은 기간 대비 48.5%, 지난해 대비 188% 증가했다.

GS25는 최근 낮 기온이 최고 19.5도까지 오르며 얇아진 옷차림에 체중 조절을 시작한 이들과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속 증가하는 '홈트족'이 늘어난 것이 샐러드 매출 상승으로 이어졌

다고 보고 있다.

CU 또한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22일까지 샐러드 매출이 55.4% 늘었다. 과일·채소는 38.7%, 칼로리비는 20.3% 증가했다. 이마트24도 지난 2월 1일부터 3월 23일까지 지난해 대비 샐러드 매출이 1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의 관련 상품 출시도 늘었다. GS25는 G최근 샐러드 열풍과 샐러드로 한끼 식사를 대체하는 트렌드를 반영해 불고기계란샐러드박스를 선보였다. 크게 늘어난 샐러드 구매 고객을 위해 전문점 이상의 맛과 다양한 콘셉트의 샐러드를 지속 기획해 선보이겠다는 계획이다.

프레시지는 편의점 CU에 '요거요거 단백질' 샐러드를 단독으로 출시했다. 요거요거 단백질 샐러드는 프레시지가 처음으로 선보인 '밀 샐러드(Meal Salad)' 콘셉트의 제품이다. 프레시지는 요거요거 단백질 외에도 다양한 샐러드를 CU 단독으로 선보이고 있다.

프레시지 관계자는 "프레시지는 '편 샐러드(편의점에서 샐러드를 구매하는 이들)'를 공략하기 위해 상품 라인업을 확대하고 식사대용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샐러드 재료 구성을 다양화하는 등 다각도로 힘쓰고 있다"며 "앞으로도 라

이프 스타일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차별화된 샐러드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야쿠르트도 프리미엄 샐러드 라인업을 확대했다. 최근 '잇츠온 그린키트 4종'을 선보이며 샐러드 제품은 총 8종으로 늘었다. 한국야쿠르트는 샐러드 외에도 죽, 시리얼, 선식 등을 꾸준히 선보이며 식사대용식 사업을 지속 강화하고 있다. '프레시 매니저'를 활용한 정기배송서비스를 통해 기존 발효유 사업과의 시너지를 지속 높여나간다는 전략이다.

한편, 시장 변화에 밀키트와 샐러드 등 간편식 재료인 신선편의식품에 대한 수요도 함께 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관련 시장 규모는 1조1369억 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 대비 17% 가량 증가한 수치다.

/김민지 기자 kmj@metroseoul.co.kr

## 오리온, 용량 늘린 '착한포장' 제품 인기

오!그레놀라·촉촉한 초코칩 매출 ↑  
초코파이+카스타드 콤보 2배 신장

오리온은 합리적인 가격의 가성비 높은 제품들의 매출이 크게 성장했다고 26일 밝혔다.

오리온 측은 최근 '가성비·가심비'를 중시하는 소비심리가 확산되면서 마켓오네이처 '오!그레놀라', '촉촉한 초코칩' 등 양을 늘려 가성비를 높인 제품들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착한 포장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난 2019년 증량한 오!그레놀라와 2018년 33% 양을 늘린 촉촉한 초코칩은 지난 2월 전년 동월 대비 매출이 각각 43%, 15% 성장했다.

특히 최근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면서 온라인에서는 박스 단위 구매도 늘었다. 파이의 경우 초코파이와 카스타드가 함께 든 콤보 대용량 패키지의 매출이 2배 가량 증가했다.



오리온 대용량 제품

/오리온

오리온은 가성비를 높인 제품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지난 1월 마켓오네이처 '오!그레놀라' 3종을 리뉴얼하면서 기존 30g 규격 제품을 35g으로 가격변동 없이 16.7% 증량해 그래픽 가격을 낮췄다. 부담 없는 가격의 실속 스낵으로 인기가 높은 '치킨팝'도 새로운 맛 '치즈뿌린 치킨팝'을 이달 출시하면서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혔다.

'생크림 파이'는 기존 제품 대비 크기를 1.5배 키우고 그램당 가격이 더 저렴한 제품을 선보였다.

오리온 관계자는 "최근 소비가 양극화되면서 가성비 좋은 제품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며 "올해도 부담 없는 가격에 맛있고 품질 좋은 '실속 스낵' 라인업을 늘려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민지 기자 kmj@

## 이마트, LED 등기구 무료설치 서비스

필립스 LED 등기구 7종 20% 할인

이마트가 단순 상품 판매를 넘어 설치 시공까지 제공하는 윈스톱 쇼핑 서비스에 나선다. 이마트는 26일부터 필립스 LED 등기구 15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대형마트 최초로 연중 '출장 및 설치 서비스'를 무상 제공한다. 이를 기념해 26일부터 내달 15일까지 3주간 필립스 LED 등기구 7종을 20% 할인 판매한다.

LED 등기구는 형광등과 같은 일반적인 조명기구와 비교해 전력 효율이 뛰어나고 수명이 길어 교체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

실제 이마트 설치조명기구 매출을 분석한 결과, LED 등기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77%, 2018년 87%에 이어

지난해에는 95%까지 상승하는 등, 형광등에서 LED설치조명기구로 시장이 완전히 이동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이마트는 고객 관점에서 기존 형광등 제거 및 전선 연결 등 설치에 어려움이 뒤따르던 LED등기구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것은 물론 유료로 제공하던 설치서비스를 무료 서비스로 전환해 연중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혜택을 확대키로 한 것이다.

이로써 수도권 30평대 아파트를 기준으로 설치 시 등기구 구매가격 40만 6400원에 설치비 10만 5000원을 더해 51만 1400원이 들던 것이, 내달 15일까지는 무료 설치 서비스에 가격 할인혜택까지 더해 이보다 약 36% 저렴한 32만 5600원에 교체 설치가 가능하다.

/신원선 기자

## 오뚜기 '진짬뽕+진짜장' 매콤 짜장라면 '진진짜라'

오뚜기는 '진짬뽕'과 '진짜장'을 조합한 매콤한 짜장라면 '진진짜라(사진)'를 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다양한 라면을 조합하는 '모디슈머' 레시피가 유행하고 있다. 진진짜라는 오뚜기의 히트제품인 진짬뽕과 진짜장을 최상의 비율로 조합해 탄생시킨 매콤한 불맛짜장이다. 두껍고 넓은 면을 사용해 쫄깃하고 탱탱한 중화면 특유의 맛을 살렸다.

/김민지 기자



## CJ기프트카드 누적판매액 1000억 돌파

CJ ONE포인트 자동적립 혜택

CJ올리브네트웍스가 운영하는 'CJ기프트카드'가 누적 판매액 1000억원을 돌파했다고 26일 밝혔다.

'CJ기프트카드'는 CJ의 다양한 브랜드에서 간편하게 결제하고 CJ ONE 포인트 자동 적립까지 가능한 충전식 현금카드이다.

올리브영, CGV, 투썸플레이스, CJ더마켓 등 각각의 브랜드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브랜드 전용 카드와 모든 브랜드에서 사용 가능한 CJ기프트카드가 있으며, 최소 5000원 이상 최대 50만원까지 충전할 수 있다.

2017년 6월에 출시한 이후 올리브영, CGV 등 CJ 브랜드의 오프라인 매장뿐 아니라 CJ ONE 앱을 비롯해 카카오톡 선물하기, 11번가, 티몬, 페이코 등 다양한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구매 가능하다.

이처럼 CJ올리브네트웍스는 지속적으로 'CJ기프트카드' 판매 채널을 확대한 결과 출시 첫해에 판매액 100억 원을 돌파한 후, 18년 280억 원, 19년 600억



CJ기프트카드 인기카드 4종 /CJ 올리브네트웍스

원 판매를 기록하며 매년 두배 이상 성장하고 있다. 올해에도 이런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연 매출 1천억 원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된다.

'CJ기프트카드' 사용처를 분석한 결과 일반 고객의 90%가 선물 용도로 구입하고 기업 고객들은 대부분 승진자 기념품, 명절 선물 등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천여 개의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원하는 만큼 나눠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 때문에 기업 고객의 반응이 좋아 올해는 CJ ONE 웹사이트 내에 CJ기프트카드 B2B 전용 주문 시스템을 추가 오픈했다.

/신원선 기자

## 심플리쿡 '슬림핏 도시락' 5종 품질템 등극

건강을 우선하는 식(食)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GS리테일이 운영하는 밀키트 브랜드 심플리쿡이 지난 23일 건강식 콘셉트로 출시한 슬림핏 냉동 도시락 ▲현미밥&두부닭가슴살스테이크 ▲단호박연근영양밥&비프스테이크 등 5종(사진)이 품질템(품질+아이템)으로 등극하며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

심플리쿡이 1차 물량 1만개로 출시한 슬림핏 냉동 도시락이 출시와 동시에 폭발적인 주문량을 기록하며 하루만에 조기 품절된 것. 품절 후에도 구매 문의가 지속 이어졌을 정도다.

심플리쿡은 슬림핏 냉동 도시락의



/GS리테일

이례적인 인기 요인을 최근 코로나19 영향 속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건강식을 찾아 즐기려는 고객 수요와 집콕 문화 확대로 불어난 체중을 관리하려는 고객의 수요가 집중된 결과로 풀이했다.

/신원선 기자

신세계  
영등포

# 10년 만의 리뉴얼, 쇼핑의 신세계 보여주마

89평 푸드코트, 지역 맛집 한자리 패션관, 글로벌 브랜드 대거 입점 백화점 얼굴인 1층에 식품전문관

신세계백화점 영등포점이 새 단장을 마무리하며 지역 상권에 새 바람을 불러일으킨다.

신세계백화점은 개점 10년 만에 리뉴얼을 진행해 온 영등포점이 27일 푸드코트와 해외패션전문관을 새롭게 선보이며 대변신을 완성한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기존 영등포에서는 볼 수 없던 인기 맛집과 유명 브랜드를 대거 입점시켜 고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을 계획이다.

영등포점은 신세계 전체 점포 중 20대 비중이 가장 높다. 지난해 신세계 전 점포의 20대 비중이 11%였지만, 영등포점은 2.2%포인트 높은 13.2%에 달했다. 그만큼 트렌드에 민감한 고객이 많은 곳으로 신규 브랜드를 흡수할 수 있는 여력이 크다.

신세계 영등포점은 이번 리뉴얼을 마무리하며 잠재적 백화점 VIP인 영 고객들을 이끌고 지역 랜드마크로 굳히겠다는 전략이다. 뿐만 아니라 영등포점은



신세계백화점 영등포점 전경



신세계 영등포점 식품관

/신세계백화점

타임스퀘어까지 연결되어 있어 인근 직장인들의 수요도 고려했다.

우선 푸드코트에서는 다양한 지역 맛집들을 만날 수 있다. 패션관 지하 1층에 89평 규모로 선보이는 이 공간에는 도시락, 분식, 족발, 김밥 등 인기 먹거리 MD를 10여개 정도 넣었다.

방배동에서 시작한 분식집 '홍미단'은 부산 강동시장의 가래떡 떡볶이를 재현한다. 떡볶이 외에도 김밥튀김, 쥐포 등의 개성 있는 메뉴가 가득하다.

치킨, 닭강정을 선보이는 '송우리 닭

공장'은 와플콘에 닭강정과 치즈를 담아주는 등 특별한 비주얼로 영 고객을 겨냥한다. 삶은 족발 전문점 '도가원', 옛날식 도시락 '윤스키친' 등과 함께 영등포점에서 처음으로 만날 수 있다.

수요미식회 등 유명 방송에 자주 등장한 '포이포이 베트남'도 입점했다. 베트남식반미 샌드위치가 주요 메뉴로, 베이커리를 전공한 셰프가 직접 매장에서 빵을 반죽하고 구워내 퀄리티가 높다. 신선한 채소와 부재료도 고객들을 만족시킨다. 서울 흥대와 부산 서면 등

에서 입소문이 난 '서울호떡'도 팝업으로 운영한다.

패션관 2층도 새롭게 달라진다. 캐주얼 위주였던 브랜드 대신 글로벌 브랜드를 대거 신규로 입점시키며 영등포 상권의 격을 올린다.

이번에 660평 규모로 오픈 하는 해외 패션 전문관에서는 기존에 영등포에서 만날 수 없었던 엠포리오아르마니, 에르노, 알렉산더왕, 막스마라, 파비아나 필리피, 플리츠플리즈, 바오바오, N 21, 비비안웨스트우드를 만날 수 있다.

리뉴얼 오픈을 기념해 브랜드데이, 사은품 증정 등 오픈 프로모션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영등포점은 지난해 10월 생활전문관(리빙관)을 시작으로 올해 식품전문관, 영패션 전문관을 잇따라 리뉴얼 오픈했다. 리빙관은 건물 한동을 전부 생활 장르로 채운 파격적 시도로 업계 주목을 받았으며, 식품전문관 역시 백화점의 얼굴인 1층에 문을 열면서 과감한 혁신으로 평가 받았다.

3월 초에 선보인 영패션 전문관은 영 고객들이 좋아하는 스트리트 패션 브랜드는 물론 SNS 인증 명소인 아트월까지 마련해 주목을 받았다.

영등포점은 이번 푸드코트와 해외패션관까지 새롭게 선보이며 개점 10년 만의 리뉴얼이라는 과업을 완성했다.

신세계백화점 영등포점장 박순민 상무는 "기존의 틀을 깨는 혁신적인 리뉴얼을 통해 영등포점이 서남부 상권의 랜드마크 쇼핑센터로 발돋움 했다"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콘텐츠와 구성으로 고객들의 만족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성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 일본, 셀트리온-SK바이오와 코로나 치료제 개발 대응계약, 서체 'DW 임팩타민체' 무료 배포

후보물질 선별시 임상시험 지원  
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단 구성  
실용화 가속 위해 관련부처 협업

질병관리본부와 국내 기업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항체 치료제와 예방 백신 개발을 위해 나선다.

질병관리본부 산하 국립보건연구원은 26일 치료제와 백신 개발 긴급과제 공모 결과, 자체 연구 및 국내외 임상시험, 허가 등의 경험이 있고 대량생산 제조시설을 구축한 셀트리온과 SK바이오사이언스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국립보건연구원은 셀트리온과 단클론항체 치료제 개발에 나선다. 단클론항체는 코로나19 완치자 혈액의 항체를

분석·평가하여 바이러스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항체만 선별하여 치료제로 이용하는 방식이다.

SK바이오사이언스와는 합성항원(서브유닛) 기술을 이용한 예방 백신 개발을 추진한다. 서브유닛 백신은 면역 반응을 유도할 수 있는 병원체의 일부 단백질(항원)만 유전자재조합 기술로 합성, 제조한 백신으로 감염의 우려가 적고 안전성 높다.

국립보건연구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후보물질 개발과 효능 평가 등을 수행하고, 효능이 입증된 후보물질이 선별되면 비임상·임상시험도 지원할 예정이다.

앞서 국립보건연구원은 '코로나19의 치료·임상 및 백신개발 연구 기술 기반 마련'에 대한 연구계획 발표 및 산·학·연 전문가 회의를 통해, 현장에서 필요

로 하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연구과제 수요를 발굴했고, 관련 예산을 추가로 확보했다.

정부는 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단을 구성해 올해 연구예산 119억5000만 원을 활용할 예정이다. 또 실용화를 가속화하기 위해 연구·개발 단계부터 식약처 등 관련 부처와 협업한다. 또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의료기관(경북대학교, 국립중앙의료원)과 협업하여 임상현장에 필요한 환자의 임상역학과 면역학적 특성 연구를 추진하고, 관련 기술과 경험을 축적한 전문기관(광주과학기술과학원, 한국화학연구원)과 협업하여 방역현장에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는 진단자원과 치료제 평가에 필요한 자원을 개발하고 있다.

/이세경 기자 seilee@

대응계약이 '임팩타민' 브랜드 서체를 개발해 소비자와의 접점을 넓혀 나간다.

대응계약은 26일 '임팩타민' 브랜드 서체인 'DW 임팩타민체'를 개발해 무료 배포한다고 밝혔다. 'DW 임팩타민체'는 대응계약이 아시아 대표 국제 디자인상 'ASIA DESIGN PRIZE'에 출품해 금상을 획득한 서체이다.

대응계약은 국내외 기업들이 브랜드 이미지 강화를 위해 전용 서체를 개발하는 트렌드에 맞춰 '임팩타민' 브랜드 서체를 개발했다. 임팩타민은 '대치동비타민'이라는 입소문으로 성장해 매출 400억원을 바라보고 있는 제품으로, 대응계약은 이번 서체 개발을 통해 누구나 일상에서 쉽게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와의 브랜드 접점을 확대하고, '임팩트 있는 비타민'이라는 이미지를



대응계약이 개발한 브랜드 서체 'DW 임팩타민체'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임팩타민'은 필수비타민B8종이 함유돼 피로회복과 에너지 생성에 도움을 주는 제품으로, DW 임팩타민체는 '임팩타민'의 활기 넘치는 브랜드 이미지를 상징적으로 나타냈다. 또 글자의 중심을 위쪽에 두어 안정감과 가독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이세경 기자

## 오취 종일 산뜻한 피부 '엘티밋커버 컨실러'

강력한 커버력, 촘촘한 밀착력

LG생활건강이 강력한 커버력과 밀착력으로 빈틈없이 완벽한 피부 표현을 돕는 오취의 '엘티밋 커버 톤웨어 컨실러 SPF 35 PA++'를 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오취가 선보인 '엘티밋 커버 톤웨어 컨실러'는 트러블, 점 등 국소 부위부터 주근깨, 홍조, 다크써클 등 넓은 부위 커버가 가능한 쿵-픽싱 컨실러로, 듀얼 픽싱 시스템이 적용되어 피부에 뭉침 없이 빠르게 픽싱되어 강력한 커버력이 오랜 시간 유지되는 것이 특징이다.

또 피부 자극을 최소화한 마일드 스



킨 컨디셔닝 시스템을 적용해 컨실러 사용 후 시간이 지나도 끈적임 없이 산뜻하고 편안한 피부를 경험할 수 있다.

오취는 이번 신제품 출시와 함께 동일 엘티밋커버 라인의 '엘티밋커버 쿠션'에 한층 업그레이드된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적용해 리뉴얼 출시했다.

/조효정 기자 princess@

## 길리어드 사이언스 코리아 코로나 취약계층에 1억 기부

길리어드 사이언스 코리아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성금 1억원을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길리어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기초 생필품과 개인 위생용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1억 원의 성금을 조성했다. 이 성금은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전국 코로나19 취약계층에게 생필품키트 및 마스크, 소독제 등 구호 물품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이세경 기자

## 헤지스, 기능·패션 모두 갖춘 마스크 출시

특수 원사 사용... 자외선 차단

생활문화기업 LF의 대표 브랜드 헤지스(HAZZYS)가 기능성과 패션성을 갖춘 필터 교체형 마스크를 LF몰을 통해 출시한다고 26일 밝혔다.

헤지스 마스크는 구리 파우더를 입힌 특수 원사 '큐프러스(CuPrus)'를 사용해 자외선 차단은 물론 항균 및 소취 기능이 뛰어난 제품으로, 미세먼지 포집 효율 94% 이상의 교체용 필터 마스크가 함께 구성됐다. 마스크 본체는 외부 오염 시 세탁하여 재사용할 수 있어, 내부 필터 마스크만 교체하면 지속적인 사용이 가능하다.



마스크의 디자인과 착용감도 우수하다. 얼굴 곡선을 감싸는 입체적인 핏과 뛰어난 밀착력으로 날렵한

V라인을 연출해주는 동시에 활동 중 흔들림이 적다. 또, 스트레치 기능성 및 봉제선이 없는 심리스 기법을 적용해 장시간 착용해도 귀 부분의 통증이 없으며, 통기성이 뛰어난 소재와 구조적인 볼륨감 덕분에 편안하게 호흡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조효정 기자

# 하나금융, 온누리상품권·지역화폐 100억 매입

###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앞장 임직원 급여 일부 상품권·지역화폐로 지급

하나금융그룹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 상품권 및 지역화폐 총 100억원을 구입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상품권 구입은 하나금융그룹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동참으로 이뤄졌다. 그룹 내 임직원들은 6개월에 걸쳐 본인들의 급여 등의 일부를 온누리 상품권과 지역화폐로 받기로 함으로써 국가적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다함께 동참하기로 했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온누리 상품권 및 지역화폐 구입이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전국 각 지역 내 전통시장 및 골목 상권 사용을 유도해 매출 급락으로 어려움에 처한 전



하나금융그룹

/연합뉴스

국의 소상공인 지원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온누리 상품권은 전국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 활성화 구역 내 가맹점에서 사용

이 가능하며, 각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화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나누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 천안함 10주기

# 주인공들에 실질적 예우 절실

천안함 피격 10주기를 맞이해 표면적으로는 천안함의 숭고한 위국헌신을 기리지만, 정작 유족들과 생존전우들을 위한 실질적인 예우는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해군은 26일 천안함 피격 10주기를 맞아 오후2시 평택 해군 2함대사령부에서 제10주기 천안함 추모행사를 거행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천안함 함명을 신형 호위함에 이름 붙이는 방안이 군 내부에서 검토되고 있다.

### ◆코로나 여파로 축소된 추모식

이날 행사는 정경두 국방부장관이 직접 주관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천안함 용사들의 유가족과 생존 장병 그리고 심승섭 해군 참모총장, 이승도 해병대사령관 등 군 주요인사와 이병구 국가보훈처 차장, 손정목 천안함재단 이사장 등 150여 명의 인원만 참석했다.

복수의 군 소식통들에 따르면 천안함 10주기를 맞아 군 내부에서는 천안함을 신형 호위함으로 부활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만약 ‘천안함’ 명칭이 신형 호위함에 명명된다면 광역도시급

명칭을 붙이는 현행 관례와는 다른 예의 사례가 되는데 정 장관이 천안함 유족 및 관련 단체의 희망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천안함 함명 제정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 ◆서해수호 98명 국가유공자 돼야

표면적으로는 천안함 10주기는 규모는 줄었어도 융숭해 보이는 구색은 갖추 셈이다. 그렇지만, 일각에서는 정작 주인공들이 빠진 보여주기란 지적도 나온다.

최근 국가보훈처는 국립대전현충원의 공훈록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했다. 본지가 지난8일 천안함 전사자와 한주호 준위의 공훈내용이 잘 못 오기된 것이 계기다. 2차연평해전의 전사자 한상국 상사의 계급부터 천안함 임재엽 상사와 김종현 상사의 이름과 계급 등이 잘 못 기록돼 있었다. 충무무공훈장을 받은 한주호 준위는 화랑무공훈장을 받은 것으로 기록돼 있었다.

언론과 유족이 지적할 때까지 10년 동안 손을 놓고 있던 셈이다. 과연 천안함 함명 부여 등 표면적인 위로가 진정으로 천안함 유족과 생존자들을 위한 최선인지 생각해 볼 문제다.

/문형철 기자 captinn@

## 두산연강재단, 대구·경북 학생에 특별장학금 3억 지원

### 중·고교 학생 300명에 전달

두산연강재단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와 경북 지역의 중·고교 학생들에게 특별 장학금 3억 원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장학금은 대구시·경상북도 교육청을 통

해 300명의 학생들에게 전달된다.

두산연강재단은 지난 2006년부터 수해, 태풍 등 자연재해를 비롯한 재난을 입은 지

역의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050명의 학생들에게 총 8억5000만원의 특별재해장학금을 전달했다.

박용현 이사장은 “이번 사태로 다른 지역에 비해 더 큰 피해를 입은 대구·경북 지역의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학업을 이어나가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오늘의 운세 3월 27일 (음 3월 4일) http://www.saju4000.com

- 36년생** 새 술은 새 부대에 품으라 했다. **48년생** 고독하게 치우쳐 있는 삶에는 재정이 도모되지 않는다. **60년생** 부모님 생신날 효를 행하자. **72년생** 골치 아픈 일은 조언을 구하여 처리. **84년생** 간교한 싸움에 휘둘리지 않도록.
- 37년생** 친구가 지적해주는 말을 경청해야. **49년생** 액운을 막아주는 풍속을 따르는 것도 지혜. **61년생** 조력자가 있어서 행복. **73년생** 고급관리가 되기 전 초전. **85년생** 금전 문제는 사람 잃고 돈을 잃으니 받을 생각 말고 줘라.
- 38년생** 열 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의 마음속은 헤아리기 어렵다. **50년생** 동서남북 어느 쪽으로 가도 흥한다. **62년생** 돈의 유무에 따라 서비스가 차이 난다. **74년생** 소금 장사 나가는 데 비가 오는 격. **86년생** 실의에 빠지지 말자.
- 39년생** 심신을 닦고 집안도 닦자. **51년생** 경관은 넓고 화려하나 머물 곳이 없다. **63년생** 사회적으로 정의와 책임 의식이 일어난다. **75년생** 입안의 허처럼 구는 사람에게도 배울 것이. **87년생** 날개 없이 하늘을 나는 기분이다.
- 40년생** 물과 고기의 관계처럼 뉘 수 없이 친한 친구가 감사. **52년생** 백(倻)이 편안해야 후손도 편안해진다. **64년생** 배우자가 나에게 좋은 협력자. **76년생** 오늘의 영광은 어제의 고난에서 오는 보답이다. **88년생** 흰색이 행운을.
- 41년생** 처남으로 인해 손재수. **53년생** 기도로 우환을 줄여보라. **65년생** 사람의 귀천이 돈이나 권력에 의해 구분되는 느낌. **77년생** 보험으로 노후대비를 조금씩. **89년생** 내키지 않는 술자리는 불평 말고 차라리 가지 않으면 될 것.

- 42년생** 지난 일에 집착 말고 잊는 것이. **54년생** 독신이 부자라면 그 재물을 지키기가 수월치 않다. **66년생** 조금이라도 미흡하면 일을 중지. **78년생** 직장에서 공과 사를 구별하라. **90년생** 부지런하여 앞서가는 사람을 본받도록.
- 43년생** 너무 맑은 물에는 큰 고기가 살지 않는다. **55년생** 불행한 가정은 말이 많아 저마니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67년생** 위기를 기회로 삼아라. **79년생** 약속이 겹치지 않도록 메모하라. **91년생** 하나를 주고 두 개를 얻는다.
- 44년생** 콩과 보리는 분명 모양이 다르니 우기지 말자. **56년생** 잡자기 전에 물을 떠 놓고 명상을 잠시 해보라. **68년생** 말을 많이 하려면 지갑도 열어야. **80년생** 요행수를 바라다가 큰 손실. **92년생** 뒷사람을 도우니 성과가 온다.
- 45년생** 조상을 숭배하고 문중을 돌보라. **57년생** 어려운 일이 닥쳐도 독심으로 밀고 나가자. **69년생** 함께하는 상대방을 의심하지 마라. **81년생** 결과가 보이니 적극적으로 일하라. **93년생** 중간에 주변이 시끄러워 절로 입을 다문다.
- 46년생** 위태롭고 험난함을 무릅쓰고 오늘에 이르렀다. **58년생** 문서로 인한 이익이 있으니 기회를 잘 잡자. **70년생** 병은 자랑해야 빨리 낫는다고 했다. **82년생** 성격이 해소되고 마음이 즐거운 날. **94년생** 아침에 주변을 청결하게.
- 47년생** 재물의 증식은 음의 영역에서 시작. **59년생** 대기업을 그만두겠다는 남편이 기가 막혀서 우울. **71년생** 시비를 가리니 내 허물이 더 크다. **83년생** 눈치를 보지 말고 하고 싶은 일을 하라. **95년생** 기대가 커서 실망도 크다.

## 김상희의四季 부모노릇

경자생의 영특함과 더불어 감성지수가 남다른 을 언급한 바 있었다. 총명함과 더불어 예능이나 문학에 탁월한 재능을 가진 아이들도 많은 것이다. 아이들의 자질을 미리 알아보려는 부모라면, 특히 경자년에 아기를 낳게 되는 예비 부모들이라면 귀담아 새겨보면 좋을 것이다.

만약 재능이 예체능에 특화되어 남다른 을 느낀 부모라면 아이가 스스로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게 내버려 두는 것도 필요하다. 선택권을 주게 되면 재능은 더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했으면 한다. 스스로 영민하여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에 더욱 애정을 보이게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자면, 음감이 뛰어난 듯하다 해서 무조건 피아노를 시킨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 스스로 바이올린이나 첼로나 기타를 택하게 해보라 하는 것이다. 부모들은 부모 자신에게 익숙한 악기를 배우게 하려는 성향이 있다. 공부를 잘한다 해서 무조건 의대나 법대에 보내려 드는 것처럼 말이다.

만약 계속해서 부모의 고집대로 하려 한다면 아이의 자아가 사라진다.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힘이 없어진다. 이러한 현상이 계속되면 행복할 수가 없다. 의외로 많은 부모가 사랑해서 했다고 하는 열성들이 아이들의 정신적 성장을 막고 자녀들의 자율 의지를 꺾는 큰 요인인 것을 간과한다. 부모만큼 자녀를 잘 알기도 힘들겠지만, 오히려 등잔 밑이 어둡듯이 말이다. 사랑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지나친 사랑이 자녀를 망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다만 자신의 선택에 책임질 줄 아는 성숙한 자아를 키워나가도록 격려해주어야 하니 제대로 사랑을 알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자유도 함께 준다. 헬리콥터 부모들이 경청해야 할 대목이다.

‘김상희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 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문제출제: 손호성 **생각하는 힘**

**문제풀이:**  
3X3 �도쿠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9의 숫자가 2X3 �도쿠는 가로, 세로, 2X3박스에 1부터6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6	5			2	9
	1			7	6
9	2	6	3		8
		1	9	4	
	1	6	5	3	9
	7	8	2		
5		9		2	6
6	3	8	9		7
1	4			3	9

### 정답

2	9	1	8	9	7
8	9	7	9	1	2
7	1	9	2	9	8
1	2	9	7	8	9
9	8	2	9	7	1
9	7	8	1	2	9
9	6	8	8	9	7
2	9	7	1	6	8
7	8	1	9	2	8
8	1	9	2	9	8
2	6	8	7	9	1
8	9	7	6	1	8
1	2	8	9	8	9
9	7	9	2	6	2
6	8	2	1	8	7

		1		4
1				3
5	3		6	2
	6	2		1
	1			4
				3
5		1		



새로운 고난이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sudoku365.net>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편집인 편집국장	이장규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4414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0518호

# 200년 된 2억짜리 와인의 맛



안상미 기자의  
Why, wine

## <66> 대통령의 와인은 식초?

“10만5000파운드. 더 없으십니까?”

1985년 12월 5일. 런던 크리스티 경매장을 가득 메운 입찰자들의 관심은 단 하나의 와인에 집중됐다. 파리의 지하 저장고에서 발견됐다는 이 와인은 1787년산 샤토 라피트. 지금의 샤토 라피트로 칠드다. 프랑스 보르도의 그랑 크뤼 1등급 와인 중 하나다. 오래된 특급 와인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와인 애호가들의 흥미를 끌었지만 와인을 더 특별하게 만든 것은 병에 새겨진 ‘Th. J.’라는 글자였다. 이를 근거로 토머스 제퍼슨 전 미국 대통령이 소유한 것으로 간주됐고, 낙찰가는 10만5000파운드(15만6450달러·한화 약 2억원)로 와인 경매 사상 최고가를 쓰게 됐다. 그것도 이전 와인 경매 최고가인 3만1000달러의 5배가 넘는 금액이었다.

낙찰받은 사람은 미국 포브스지의 사주로 거부인 맬컴 포브스였다. 와인 자체보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인 제퍼슨이 소장했던 와인이라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 이 최고가 기록은 20년이 넘게 지난 2007년이 되어서야 깨졌다.

이 거래가 다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린 것은 당시 경매를 진행했던 마이클 브로드벤트가 지난 17일 92세의 나이로 타계하면서다. 저명한 와인 평론가로 이름을 날렸고, 와인



크리스티의 경매사 마이클 브로드벤트가 오래된 와인저장고에서 경매 품목을 검사하고 있다. /와인스펙테이터

업계에서 귀한 와인을 가장 많이 마셔본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만 해도 크게 관심을 받지 못했던 고급 와인에 대한 경매 시장을 구축했지만 1787년산 샤토 라피트 경매는 그가 눈을 감을 때까지 오점으로 남았다.

1787년산 샤토 라피트는 지난 수십년간 진짜인지를 의심받았고, 브로드벤트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도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다. 실제 와인 애호가로 유명한 제퍼슨은 샤토 라피트 등 프랑스 특급 와이너리에 직접 수 백병의 와인을 주문했고, 이니셜을 새겨넣었다. 그러나 1787년산을 주문했다는 기록은 남아있지 않고, 이니셜 역시 전문가들마다 진위 여부가 갈렸다.

무려 200년이나 된 와인에서는 어떤 맛이 났을까. 2억원에 상응하는 천상의 맛이였을까.

1986년 포브스의 갤러리에 1878년산 샤토 라피트가 전시됐다. 오랜 시간 뜨거운 조명을 받으면서 와인은

끓어 넘쳤고, 코르크는 병 속으로 빠져버렸다. 다시어져버려 2억원 짜리 식초가 된 셈이다. 애초에 마실 생각이 없었던 포브스 가문 사람들은 와인이 아니라 일종의 골동품으로 여기고 여전히 보관 중이다. 와인이 아니니 와인 저장고가 아니라 대통령 기념품 전시관에 맡겼다.

제퍼슨은 와이너리에 직접 다녀올 정도로 프랑스 와인을 사랑했고, 특히 보르도 5대 특급 와인을 좋아했다. 그런 그가 말년에는 쓴 와인들을 마셨다고 한다.

와이너리에 직접 주문하던 습관을 버리고, 대행인을 통해 프랑스 지역의 소박한 와인들을 부탁했다. 심지어 보르도 스타일을 모방한 와인까지도 괜찮다고 했다. 제퍼슨은 싸구려 테이블 와인을 마셨지만 아주 행복해 했다고 한다. 와인에 대한 진정한 사랑은 특급 와인을 수 백병씩 주문할 때가 아닌 말년에 싹튼 것이 아닐까.

/smahn1@metroseoul.co.kr

# 성수동 맛집 호텔에서 즐긴다 도심 속 ‘룸콕 패키지’ 인기

## 호텔 포코 성수

9시 체크인, 15시 체크아웃  
투숙시간 연장해 총 30시간  
패션스타일링 등 이색 서비스



호텔 포코 성수 루프탑 로얄 테라스룸

사회적 거리 두기가 장기화되며 ‘언택트(비대면)’ 서비스가 일상 곳곳으로 파고들고 있다. 특히 호텔업계는 지친 일상에서 잠시나마 프라이빗한 휴식을 원하는 고객이 늘어남에 따라 객실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이색 경험도 즐길 수 있는 ‘룸콕’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호텔 포코 성수가 투숙 시간 연장 혜택뿐만 아니라 객실에서 맛집 탐방과 패션 스타일링까지 즐길 수 있는 이색 패키지를 다양하게 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오는 4월 28일까지 평일 주중(월~목) 한정으로 ‘30 Hour Stay’ 패키지를 선보인다. 오전 9시 체크인-오후 3시 체크아웃으로 총 30시간 동안 보다 여유롭게 호캉스를 즐길 수 있다. 가격은 스탠다드룸 기준 8만2000원부터다(세금·봉사료 포함).

성수동 인근 지역 맛집과 연계해 ‘인룸 다이닝’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콕 성수로드’ 패키지도 내놨다. 족발로 유명한 성수동 특색을 살려 ‘위풍당당족발 성수점’의 족발세트와 함께 곁들이

기 좋은 ‘한강주조 양조장’의 나무생막걸리 1병을 직접 룸까지 가져다준다. 오는 5월 31일까지 이용 가능하며, 가격은 스탠다드룸 기준 11만9000원부터다(세금·봉사료 포함).

호텔 안에서 이색적인 추억을 만들 수 있는 ‘나만의 런웨이’ 패키지도 선보였다. 코오롱FnC의 핸드백 브랜드 ‘비케이비씨(BKBC)’와 연계해 패키지 이용객을 대상으로 핸드백 대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호텔 로비에 마련된 진열장에서 원하는 제품을 1인당 1개씩 선착순으로 선택할 수 있다. 플라로이드 카메라도 대여해줘 패션 스타일링 후 사진으로 남길 수 있다. 오는 4월 30일까지 이용 가능하며, 가격은 스탠다드룸 기준 9만9000원이다(세금·봉사료 포함).

/조효정 기자 princess@



‘봄에 만나는 보르도 와인’

26일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모델들이 ‘샤또 푸르카스 보리’ 와인을 선보이고 있다. 롯데백화점은 2020년 상반기 첫 와인박람회 ‘스프링 비노 인 롯데(Spring Vino In Lotte)’를 맞아 사넬사 소유의 프랑스 메독지역에서 생산되는 보르도 와인 ‘샤또 푸르카스 보리’ 3000병을 단독 출시 판매한다.

/연합뉴스

# 한강·도심뷰와 함께 온가족 힐링 ‘호캉스’



인터컨티넨탈 스카이라인 식사

##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커넥팅룸+4인 조식 패키지 선배 30층 스카이라인에서 아침 식사 웰컴어메니티, 수영장 이용 포함

삼성동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는 프라이빗하고 여유로운 호캉스를 위해, 일반객실 2개가 연결된 커넥팅룸과 4인 조식 혜택 등을 포함한 ‘패밀리 깃어웨이 패키지’를 4월 30일까지 선보인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조식 혜택의 경우 호텔 최고층인 30층에서 한강과 도심의 아침 풍경을 바라보며 즐길 수 있을 뿐 아니라, 자녀의 연령제한이 있던 기존 패밀리 패키지들과는 달리 연령제한 없이 조식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패밀리 깃어웨이 패키지’에는 프라이빗하지만 온전하게 여유로운 휴식을 원하는 최근 고객들의 니즈를 반영해, 문 하나로 2개 객실이 연결된 커넥팅룸을 준비했다. 함께 시간을 공유하고 싶을 때는 여유롭게 2개 객실을 모두 사용하고, 놀이와 휴식을 따로 분리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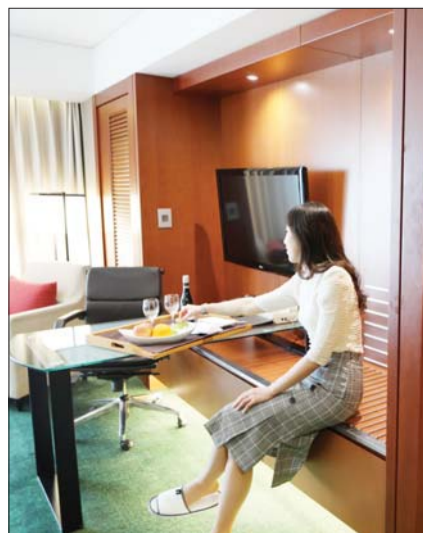
싶을 때는 각각의 방에서 원하는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아침 식사는 30층 스카이라인 키친에서 신선하고 건강한 메뉴들로 준비된다. 계란 요리는 주문 즉시 즉석에서 요리해주며, 메인 디쉬는 고기와 생선 중 선택할 수 있다. 그 외 샐러드 및 과일 등은 세미 뷔페 형태로 제공된다.

이 외에도 패키지 혜택으로 체크인 시 객실에 웰컴 어메니티가 준비되고, 위생적으로 관리되는 피트니스 및 수영장 등을 모두 이용할 수 있다. (단 4월 5일까지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방침에 따라 피트니스 클럽 운영이 일시 중단된다.) 4월 30일까지 운영되는 ‘패밀리 깃어웨이 패키지’는 4인 이용 기준이며, 가격은 주중(일~목)은 30만원, 주말(금~토)은 35만원이다. (세금 및 봉사료 별도)

한편,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는 전문 방역 업체를 통해 객실과 레스토랑을 포함한 호텔 전 구역에 특별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조효정 기자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커넥팅룸

# 마운티아, 데일리 워킹화·백팩 선보여

활동성·편의성 등 기능성 높여

비와이엔블랙아크 관계사 동진레저가 전개하는 아웃도어 컬처 브랜드 마운티아가 데일리 아웃도어 아이템으로 제격인 워킹화와 백팩(사진)을 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선보인 워킹화와 백팩은 일상생활부터 운동, 가벼운 트레킹 등에서 꼭 필요한 활동성과 편의성을 갖춰 데일리 아웃도어 활동에서 최적의 기능성을 발휘하는 것이 특징이다.

워킹화 ‘라이언’은 미드솔에 발의 뒤 틀림을 잡아주는 ‘TPU(열가소성 폴리우레탄)’ 소재를 적용해 안정적인 보행이 가능하며, 쿠셔닝이 우수한 ‘오솔라이트’ 인솔로 착화감이 탁월하다. 외피에는 ‘아쿠아블럭’ 방수 원단과 ‘메쉬’ 소재를 함께 사용해 방수 및 투습 기능은 물론, 통기성이 뛰어나다. 또한, 다



일일 시스템으로 신고 벗기 편하다. 색상은 블랙, 네이비, 베이지 3가지이며, 가격은 12만 7000원이다.

‘그리드 백팩’은 전면 개폐방식 구조를 적용해 소지품을 넣고 꺼내기 편리하다. 내부에는 노트북과 다양한 소지품을 수납할 수 있는 오거나이저 포켓, 외부에는 사이즈 조절이 가능한 스트랩으로 각 수납성과 편의성을 높였다. 다크그레이 한 가지 색상으로 출시됐으며, 가격은 10만 9000원이다.

/조효정 기자



# 버팀목전세자금대출

## 청년 주거 희망, 우리가 선물합니다



임차보증금의 최대 80% (중소기업 취업청년 가구의 전세안심대출보증은 최대100%) / 단, 일반 가구는 임차보증금의 최대70%

중소기업 취업청년가구	신혼가구	2재녀 이상가구	일반가구
최대 1억원 연 1.2% 금리	최대 2억원 (수도권 기준) 최저 연 1.0%~2.1% 금리	최대 2억 2천만원 (수도권 기준) 최저 연 1.0%~2.4% 금리	최대 1억 2천만원 (수도권 기준) 최저 연 1.0%~2.9% 금리

2020 새봄맞이 버팀목전세대출

**경품 EVENT**

이벤트 기간 : 2020.03.02(월) ~ 05.29(금)

- **참여방법** : 기간 중 버팀목전세대출 실행고객 (자동응모)
- **경품** : 삼성TV 65인치 (1명) / 삼성 에어드레서 (3명) / 애플워치5 (5명) / 휴스툼 무선 물걸레청소기 (11명) /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2,000명)
- **당첨자발표** : 6월 중 우리은행 홈페이지 공지

▶ 상기내용은 2020. 3. 11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추후 정부시책, 자금 운용계획 등에 따라 변경될수 있습니다. ▶ 대출신청인이 신용관리대상자이거나 자금운용계획에서 정한 부적격자는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원리금 납입이 지연되거나 만기일이 경과한 경우, 연체이자 부과 및 신용관리대상자로 등재될 수 있습니다. ▶ 이벤트 기간 중 대출받고 2020년 5월 29일까지 대출계좌 유지 고객에 한하며 마케팅 미동의 및 SMS 수신 거절시 응모에서 제외됩니다. ▶ 경품은 우리은행에 등록된 고객님의 자택주소지 및 휴대폰 번호로 배송되며, 연락처 정보 오류 등으로 반송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니 등록된 고객정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품 당첨 고객에 한해 고객정보가 업체에 제공될 수 있으며, 경품 발송 이후 고객정보는 파기됩니다. ▶ 게재면적 제한으로 상기상품의 필요 공지사항을 전부 표시할 수 없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로 문의하시거나 우리은행 홈페이지(www.wooribank.com)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객센터 : 1599-0800, 1599-5000, 1588-5000  
▶ 우리은행은 전화 혹은 문자를 통해 「대출을 조건으로 금전 및 압설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2020.03.13 준법감시인-0599 심의필 (유효기간 : 2021.3.31)

공직자 재산공개

# 공직자 재산 상위 10명 중 3명 경북

박영서 의원 116.8억 경북 최고 이철우 경북도지사 15억 신고 공개대상자 51%, 재산 5억미만

정부 고위공직자 재산 총액 상위 10위에 경북에서 3명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관보를 통해 공개한 '2020년 정기 재산 변동 사항'에 따르면 박영서 경북도 의원(116억8천100만원), 김수문 경북도의원(107억8천200만원), 전우현 경북도 경제부지사(103억9천100만원)가 100억대 재산을 보유해 상위 10위 안에 들었다.

정병운 경북도립대 총장은 상위 10위 밖이나 100억1000만원을 신고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5억1600만원으로 전년보다 1억2400만원이 증가했다. 김병수 울릉군수는 64억1800만원으로 도내 기초단체장 가운데 재산이 가장 많았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

대상자에 경북에서는 도지사, 행정부지사, 경제부지사, 경북도립대 총장, 도의원(57명), 시장·군수(22명) 등 83명이 포함됐다.

경북개발공사사장, 경북테크노파크 원장, 경북문화관광공사 사장 등 공직 유관단체 임원과 시·군의회 의원 등 285명은 경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공개대상자다.

경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공개대상자 285명 신고재산 평균은 7억8000만원으로 전년보다 4900만원이 증가했다. 이들 가운데 66%(189명)은 재산이 늘었다. 평균 증가액은 1억2700만원이다.

공개대상자 51%(144명)는 재산이 5억원 미만이다. 5억~10억원 73명, 10억~20억원 41명, 20억~50억원 23명, 50억원 이상 4명으로 나타났다.

시·군의회 의원 278명의 신고재산 평균은 7억3800만원으로 나타났다.

/경북=문봉현 기자 newsmun@metroseoul.co.kr

# 전남 공직자 10명 중 1명 재산 1년간 1억이상 증가

최고 재력이 이동현 도의원 79억 공직자 328명 평균 재산 8.1억 김영록 전남도지사 18억 보유

전남 도내 공직자 등 재산공개 대상자의 10명 중 1명은 지난 1년간 재산이 1억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많이 재산이 늘어난 공직자는 허정임 함평군의회원으로 18억3000만원을 불렀다. 허 의원은 재산은 66억9000만원이다.

26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올해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 대상은 도지사·부지사·고위공무원·도의원·시장·군수·시군의원·유관단체 임원 등 328명이다.

공개 대상자의 평균 신고재산 총액은 8억1728만원으로, 재산이 늘어난 공직자는 213명, 준 대상자는 115명이다.

재산 신고액은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이 8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 신고자는 77

명이다. 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공직자는 15명이다.

전년도보다 재산이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증가한 공직자는 71명 21.6%로 가장 많았으며,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늘어난 공직자는 49명 14.9%이다.

재산이 1억원 이상 증가한 대상자는 모두 42명으로 12.8%였으며, 재산이 준 경우는 115명 35.1%이다.

재산 증가요인은 부동산 공시가액 상승·급여저축 등이며, 생활비 지출과 기존 신고재산의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로 재산이 줄었다고 신고했다.

재산을 가장 많이 불린 허 의원은 부동산 매입, 부동산 임대 소득 증가, 예금 소득 증가 등이었다.

최고 재력가는 이동현 전남도의회원으로 78억9000만원을 신고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해보다 1억7900만원이 증가한 18억7200만원을 신고했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 광주 공직자 최고 47억 단체장 재산 평균 7억

시의원 평균은 6.7억

이용섭 광주시장이 올해 신고한 재산은 1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미란 광주시의원이 47억원으로 광주 단체장·광역의원 중 최고의 자산가에 이름을 올렸다.

26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 공개 현황에 따르면 이 시장은 작년보다 1억3700만원이 늘어난 10억원을 신고했다. 아파트 등 공시지가 상승과 어머니로부터 전남 함평의 집을 상속받아 재산이 늘었다.

최고 재력가인 임미란 의원은 6억9800만원이 늘어난 47억3100만원을 신고했다. 이 시장과 5개 구단체장, 22명 시의원의 평균 재산은 6억7500만원이었다.

단체장의 평균 재산은 7억2100만원으로 나타났다. 시의원들의 평균 재산은 6억4900만원이었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의 신고액은 8억7700만원으로 작년보다 1억7800만원 증가했다.

/광주=김태수 기자 ts7080@



굿크리에이터 캠페인.

## 경북도 크리에이터와 코로나 극복 희망메시지

경북도가 국내 유명 스타와 함께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대국민 희망 메시지 전달 캠페인을 벌인다.

경북도는 한국MCN협회와 함께 코로나19로 고통 받고 있는 대구경북에 희망 메시지를 전달하는 굿 크리에이터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26일 밝혔다.

한국MCN협회는 글랜스TV, 다이아TV, 트레저헌터, 샌드박스네트워크 등 70여개 MCN 기업을 회원사로 두고 있으며 소속된 크리에이터는 약 1만 여명으로 MCN 및 크리에이터 산업 진흥과 안정적인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내 대표 MCN 비영리단체다.

대국민 희망 메시지는 한국MCN협회가 진행 중인 굿 크리에이터 캠페인의 일환으로써 코로나19로 힘들어하고 있는 모두에게 희망을 주고자 스타들의 재능기부와 동참으로 만들어지고 있으며 종식 선언 시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현재 축구선수 손흥민, 가수 홍진영, 제아, 공원소녀, 유튜브 크리에이터 헤이지니, 킷백 등이 참여했으며 추가로 여러 스타와 크리에이터가 동참 의사를 밝혔다.

/경북=문봉현 기자

## ‘1000억 투입’ 고양시민에 위기극복지원금

이재준 시장 “선별적 지급 필요”  
도 재난소득과 중복수령 가능  
1000억 가용재원 마련

이재준 고양시장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를 극복하기 위한 ‘위기극복지원금’을 고양시민 80% 이상에게 지급하겠다”고 26일 밝혔다.

고양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위기극복 지원조례(고양시 재난에 따른 위기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를 지난 24일 입법예고했다.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하는 대로 지급 가능하다.

이시장은 최근 논란이 분분한 지급 대상과 관련해, 정부와 정치권의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모두가 똑같은 가치를 누리는 것을 평등이라고 볼 수 없다. 상위 20%에게 10만 원은 큰 돈이 아니지만, 코로나 사태로 하루 매출이 제로에 가까운 영세사업자에게는 단비와 같은 돈”이라며 선별적 지급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고양시는 코로나19 여파를 극복하기 위한 ‘위기극복지원금’을 고양시민 80% 이상에게 지급하겠다고 26일 밝혔다. /고양시청

아울러 “감염병은 누구한테나 평등하게 찾아오지만, 그 타격은 불평등하다. 어려울수록 책임과 고통을 함께 나누어 지는 것이 공동체의 존재 이유다”라며 힘든 시기일수록 ‘함께 가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양시에서 대안으로 제시한 것은 ‘소득에 따른 시민 80% 지급안’이다. 즉 상위층 20%를 제외한 나머지 80%의 시민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통계청의 ‘소득 5분위’ 중 상위 1분위(20%)를 제외하면 대상자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선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위기극복지원금은 경기도에서 발표한 ‘재난기본소득’ 10만 원과 중복수령이 가능하다. 따라서 고양시민 중 소득하위 80%에 해당하는 4인 가족의 경우, 최대 90만 원 가까운 기본소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는 상황이 긴급한 만큼 법적 기반인 조례부터 우선 만들고, 구체적인 지급액과 지급대상, 형태는 정부 방침과 시의회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고양(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오늘의 날씨**

3월 27일(금)  
음력 : 3월 4일

수도권 날씨  
**11~16°C**

운동 지수 ■■■■■■■■■■  
빨래 지수 ■■■■■■■■■■  
세차 지수 ■■■■■■■■■■  
외출 지수 ■■■■■■■■■■

해돋이 / 06:25 | 해질 / 18:50

연천 10/17, 동두천 10/18, 가평 10/18, 파주 9/16, 서울 11/16, 양평 13/18, 인천 9/14, 수원 11/15, 용인 11/15, 평택 10/16, 백령도 6/7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 전남도, 택시업 종사자에 35억 긴급지원

1인당 50만원 지역사랑상품권

전라남도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택시운수종사자들을 위해 도비 35억 원을 긴급 지원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전남도가 취약계층 등에게 지원키로 한 긴급 생활비(30~50

만원)와 별개로, 승객수가 줄어들어 수입이 감소해 어려움을 겪은 택시운수종사자의 생계안정을 우선적으로 돕기 위해 마련됐다. 택시 종사자 1인당 50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게 된다.

도는 그동안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버스·택시업계에게 마스크 3만 개를 긴급 지원했으며, 지난해 버스업체

적자노선 재정지원금 136억 원도 신속히 집행했다. 또 해당 사업의 재원인 행정안전부 보통교부세가 확정됨에 따라 127억 원의 예산을 추가 편성해 즉시 지급할 방침이다. 특히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버스·택시·터미널 등 대중이 이용한 차량 및 시설 방역을 위해 별도로 예비비 2억 7500만 원을 긴급 편성해 마스크와 소독약,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이달 내로 추가 지급할 계획을 세웠다. /전남=양수영 기자

# “군산서 뜨는 공공앱 ‘배달의 명수’, 서울시 왜 못만드나”

## 소상공인 중심, 앱 개발 목소리

전북 군산시 ‘배달의 명수’ 앱 귀감 2주만에 1.6만 가입, 2700건 주문  
서울 자영업자들, 코로나19 영향  
매장 수요 없어 배달서비스 절실  
서울시 “플랫폼 구축 검토 안해  
소상공인 66만… 접근 신중해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들이 슬러져가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배달 중개 수수료가 제로인 ‘공공배달앱’을 만들어 지역 경제를 살려달라고 아우성치고 있지만 서울시는 배달 플랫폼 개발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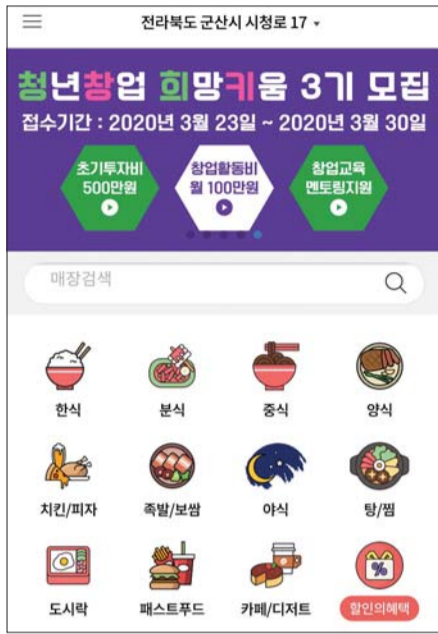
전문가들은 재난기본소득 등 일회성 현금 지급보다는 공공음식배달 어플 구축과 같은 지속가능한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공공음식배달 어플은 배달앱 이용 수수료와 광고비, 가입비가 없는 3무(無) 애플리케이션이다. 전북군산시가 이달 13일 ‘배달의 명수’라는 이름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선보였다.

26일 군산시에 따르면 배달의 명수는 출시 2주 만에 가입자 수 1만6100명을 돌파했다. 주문 건수는 2700건에 달한다.



군산시 공공배달앱 ‘배달의 명수’ 홍보 포스터(왼쪽)와 앱 화면.



/군산시

서울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최모 씨는 “군산에서 모바일 지역상품권 활성화 방안으로 시작한 공공음식배달 애플리케이션 사업을 제로페이처럼 서울시에서 전국 표준 앱으로 개발했으면 좋겠다”며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에 큰 타격을 입은 음식점 운영 자영업자들은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음식배달 서비스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최 씨는 “기존 배달앱 서비스에 가입할 경우 높은 수수료를 감당해야 하고 배달 어플사의 할인 이벤트 참여 요구를 수용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배달 애플리케이션 업체의 과점 상태로 인해 상가 임대료처럼 원치 않는 계약 조건을 울며 겨자 먹기로 감내해야 한다”고 토

로했다.

군산시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통한 선순환 경제 기반을 구축하고자 지난해 지역사랑 배달앱 개발에 착수해 올 3월 ‘배달의 명수’를 출시했다. 음식점주들은 기존 음식배달어플의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비 부담을 덜고 소비자들은 모바일군산사랑상품권 결제를 통해 8%의 할인 혜택을 받는 상생어플이다.

군산시 소상공인지원과 관계자는 “원래 시장님 공약 사항이 지역 내 종합쇼핑몰을 구축하는 것이었는데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낮다 보니 음식배달앱 개발로 방향을 틀게 됐다”며 “현재 앱이 나온 지 보름 가까이 됐는데 음식점 사장님들도

소비자들이 배달의 명수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배달료나 음식 주문 가격을 할인해주는 등 자구적인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다”고 말했다.

이날 군산시에 따르면 경주, 대구, 대전, 광주, 부산 등의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위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군산시는 향후 해당 앱에 병원 예약 기능 등과 같은 서비스를 추가할 수 있도록 플랫폼 확장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공공배달 플랫폼이 내수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부 유출을 막을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자영업자 서상철(가명) 씨는 “독일업체 딜리버리 히어로가 요기요를 인수하고 배달의 민중까지 인수 합병을 하면서 우리 내수시장을 외국계 기업이 장악하게 됐다”며 “서울시가 배달앱 플랫폼을 만들어 외국 회사에 높은 수수료를 내지 않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시민 장모 씨는 “배민과 요기요 합병은 플랫폼 독점이라는 4차 산업의 부정적인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며 자영업자들이 점점 더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지자체가 중심이 돼 우리 지역 배달 어플을 만들어 운영하고 제대로 자리를 잡으면 배달앱 이용 점유율이 중심이 된 생산자-소비자 협동조합에 인계해 경영토록 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들의 간절한 바람과 달리 서울시는 현재 공공배달앱 개발을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직 시에서는 공공배달 플랫폼 구축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서울에만 66만의 소상공인이 있고 배달서비스를 공공앱으로 제공하는 게 쉽지 않은 결정이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열린데이터광장의 ‘식품위생업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1~20일 서울 지역에서는 전년 동기 대비 9% (132곳) 많은 1600곳의 음식점이 폐업했다. 이달 문을 닫은 점포 중에는 2008년 이전에 개업한 식당도 114곳이나 포함됐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메르스 사태, 사드 보복까지 견뎌냈던 점포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린 것이다.

최원철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특임교수는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식당에 가지 않고 전부 온라인 쇼핑을 하거나 음식을 배달시켜 먹다 보니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는 상인들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며 “배달앱을 대기업, 자본을 가진 회사가 독점하는 형태가 되면 미국보다 소상공인이 4배가 많은 우리나라는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최원철 교수는 “서울시 등 지자체에서 공공배달앱 같은 SNS 플랫폼을 만들어주면 중간에 수수료를 떼이지 않을 수 있어 소상공인과 배달 라이더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인 현금 지급보다는 플랫폼 시스템 지원이 정책적 효과가 크다”고 제언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 서울 노후주택 정비사업 대상확대·규제완화

###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개정안 공포 자치구 건축위 심의절차 등 생략

서울시가 노후 저층 주거지 주택을 개량하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인 ‘자율주택정비사업’의 대상은 넓히고 조건과 규제는 완화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26일 공포했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노후 단독·다세대주택 집주인들이 전원 합의로 주민합의체를 구성하고 주택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이다.

지금까지는 단독·다세대주택만 사업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연립주택과 나대지도 대상이 될 수 있다.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지역이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도 건축규제완화가 적용된다. 기존에는 주택성능개선지

원구역에만 규제 완화를 인정했다.

주택 수를 늘리고자 할 때 반드시 받아야 했던 자치구 건축위원회 심의 절차는 생략하도록 해 추진 절차도 간소화했다.

강명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조례 개정으로 주택이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노후 저층 주거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주택공급을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창작연극지원센터 조감도.

/서울시

## 대학로에 창작연극 지원센터 들어선다

서울시, 2022년 완공목표 착공

서울대학로 인근에 창작연극 활성화 종합지원센터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성북구 동소문동1가 일대에 2022년 완공을 목표로 가칭 ‘창작연극지원센터’를 짓는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한다고 26일 밝혔다.

창작연극지원센터는 지하 2층~지상 6층, 연면적 7224㎡ 규모로 조성된다. 사업비로 총 348억원이 투입된다.

센터는 종로구 동승동·연건동·이화동·해화동 등 대학로 일대의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작연극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시설이다. 2017년 국제현상설계공모에서 당선된 성북구 소재 운생동건축사무소의 설계안이 채택됐다.

최신 장비와 조명과 함께 측무대·후

무대가 설치돼 모든 장르의 연극을 시연할 수 있는 250석 규모의 연극 전용극장, 다양한 형태의 연극을 실험해 볼 수 있는 200석 규모의 블랙박스 극장이 조성된다.

또 창작연극 기획 업무에 쓰일 사무실과 회의실, 공연의 규모에 맞는 연습이 가능한 연습실(대 1, 중 3, 소 1), 리딩룸 4개 등도 생긴다. 지역 주민들과 연극인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북카페, 전시실, 다목적실, 편의시설도 건립된다.

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센터는 연극인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해 연극 발전에 기여하고 시민들이 다양한 공연을 즐길 수 있는 문화시설로 조성할 계획”이라며 “센터 건립으로 연극계의 어려움이 해소되고 대학로 소극장이 활력을 되찾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 서울시, 신천지 설립허가 취소

신도명단 허위제출 등 방역에 혼선

서울시가 신천지교의 사단법인 ‘새하늘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신교회’의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신천지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서 정부의 방역활동을 방해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했다는 판단에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6일 오전 시청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신천지 지도부는 표면적으로는 정부의 방역활동과 전수조사에 협력한다고 말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신도 명단을 늦장·허위 제출해 방역활동에 큰 혼선을 초래했다”며 “지역 사회 감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화급을 다루는 상황에서 시민 제보로 위장시설을 추가로 찾아내

폐쇄하는 등 막대한 비용과 행정력이 낭비됐다”고 밝혔다.

박원순 시장은 “신천지 관련 사단법인은 공익을 현저히 해하고 허가조건을 위반했다”며 “민법 제38조에 따라 26일부로 설립허가를 취소한다”고 말했다. 이날 시에 따르면 대한민국 확진자 9241명 중 신천지 관련 확진자는 5000명이 넘는다고. 전체의 55%가 넘는 수치이며, 대구·경북의 경우 약 70%에 이르고 있다.

박원순 시장은 “신천지가 신도들에게 역학 조사하는 공무원들의 전화를 아예 받지 않거나 신천지 교인임을 숨기도록 하는 등 거짓 정보를 제공했다”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신속한 방역과 예방활동을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파파라치 학원장 등 입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파파라치 학원’을 운영하면서 몰래카메라를 팔아 수익을 올려 온 학원 원장과 대표 등 3명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2~8월 소득을 올릴 기회를 제공한다고 생활정보지에 구인광고를 내 사람들이 사무실을 방문토록 유인하고 이 중 365명에게 약 5억4000만원어치의 중국산 몰래카메라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대당 160만원에 판매한 중국산 몰래카메라의 원가는 6만원이었다. /김현정 기자



[금융] 조용병 신한금융회장 연임 "신뢰로 위기 극복 오뚝이 신한!" 제19기 05



Life

[라이프] 신세계백 영등포점 10년만의 리뉴얼 쇼핑의 신세계로 L2



저온살균으로 한단계... 무항생제로 한단계...

# '63°C 30분' 공식, 유익균 살리고 선진낙농 UP

## 메가히트 브랜드 탄생스토리

### 05 파스퇴르

파스퇴르는 1987년 '파스퇴르 후레쉬 우유'를 출시하며 국내 최초로 저온살균 우유를 도입했다. 저온살균 우유란 63°C의 저온에서 30분간 살균하는 방식의 우유를 말한다. 낙농 선진국인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이 같은 저온살균 우유가 널리 소비되고 있다.

저온살균 방식을 적용하면 생우유에 들어 있는 효소나 유산균 등 유익한 균은 그대로 살리고 결핵균과 같은 유해균만 죽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된다. 또 초고온살균보다 칼슘과 단백질 등 영양소 열변성 및 비타민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 공법은 원유 품질이 나쁘거나 세균수가 많으면 사용할 수 없고 63°C의 온도를 30분 동안 일정하게 유지하여 해로운 균만 사멸시키는 열처리 공법이기에 때문에 큰 비용과 노력이 필요하다.

#### ◆ 국내 원유관리 수준을 높인 파스퇴르

1993년 세균 수와 체세포 수를 기준으로 한 원유등급제 도입 이후 국내 원유 품질은 빠르게 향상됐다. 낙농편람에 의하면, 2014년 이후 원유의 90% 이상이 1A 등급(ml당 세균 수 3만 이하)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세균 수 기준 1A 등급 원유가 전체의 50%를 넘어선 지는 20년밖에 되지 않는다. 농가에 냉각기가 제대로 보급되지 않았던 198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착유한 원유의 냉각을 대부분 지하수나 흐르는 물에 의존해 원유가 오염될 가능성이 컸다.

이런 상황에서 파스퇴르 우유는 국내 유가공 역사에서 신선한 충격이었다. 파스퇴르 우유의 가장 큰 특징은 저온살균인데 이는 원유의 품질이 보장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파스퇴르 원유 자체 규격에서의 1A 등급은 세균 수 8000/ml 이하로 현재 법적 기준과 비교해도 3.7배 간간한 수준이다.

이 같은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목장의 위생 상태가 중요하다. 목장의 세균 수 검사는 법적으로 월 2회지만, 파스퇴르는 매일 검사를 진행해 불합격 시 납유 정지 등과 같은 페널티를 적용했다. 파스퇴르에서 20년간 품질관리 업무를 해온 정성숙 상무는 "축사 청소가 조금 느슨해도 금방 원유가 오염돼 세균수가 높아지기 일쑤"라고 말했다. 간간한 목장 관리에도 원유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목장주들은 서로 파스퇴르에 납품하려 했다.

물론 이는 쉬운 과정이 아니었다. '목장의 착유소 중에 여러 마리는 위생 및 건강 상태가 나빠 도태해야 한다.', '착유 전 소한 마리당 물수건에서 마른 수건까지 4장의 수건을 써가며 젖을 닦아야 한다.', '착유기는 항상 세제를 사용해 깨끗이 세척해야 한다' 등의 조건을 이야기하면 목장주들은 황당해하곤 했다. 평소보다 2배 이상 착유 시간이 길어지고, 품이 엄청나게 들기



바른목장우유 생산 모습.



파스퇴르 직원이 원유 품질 관리를 하고 있다.

/파스퇴르

국내 최초 저온살균 우유 도입 유익균만 살리고 영양손실 최소화

원유 품질 위한 철저한 목장 위생관리 까다로운 기준으로 유가공 수준 올려

친환경 무항생제 인증 목장 원유로 자연에 가까운 건강한 우유 만들어

때문이다. 파스퇴르는 이 같은 까다로운 기준을 유지하면서 국내 유가공 수준을 끌어 올렸다.

#### ◆ 더 귀한 원유로 더 안심할 수 있게

파스퇴르는 최고의 원유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전목장 관리, 원유 검사에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입고되는 원유 탱크뿐만 아니라 목장에서 매일 검사가 이뤄지고 있다. 검사 항목도 산도 검사, 가수 검사, 항생제 검사, 세균 수 검사, 체세포 수 검사 등 다양하다. 엄격한 품질관리를 바탕으로 해썬(HACCP) 인증을 받았다.

2014년 2월부터는 롯데푸드 파스퇴르 공장이 국내 유업체 최초로 무항생제 취급자 국가인증을 획득해 더 안심할 수 있는 우유를 선보이고 있다. 친환경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제는 친환경농업 육성법 개정에 따라 2007년 3월 28일부터 친환경 인증품에 신규 도입됐다.

친환경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은 항생제 사용 기준으로만 획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무항

생제(Non Antibiotic) 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항생제 조건 이외에도 ▲축사 및 사육 조건 ▲가축의 입식 및 번식 방법 ▲사료 및 영양 관리 ▲동물복지 및 질병 관리 ▲운송·도축·가공 과정의 품질관리, 가축 분노의 처리 등 각종 까다로운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2018년부터는 정부의 무항생제 인증기준이 강화돼 더욱 엄격하게 목장을 관리하고 있다.

더 안심할 수 있는 우유를 찾는 수요가 늘어나면서 친환경 인증(유기농 및 무항생제 인증)을 받은 우유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에 의하면 2011년 2만8306t에 불과하던 친환경 인증 우유는 2019년 11만1729t으로 4배 가까이 늘었다. 특히 같은 기간 무항생제 인증을 받은 우유는 8627t에서 6만6899t으로 8배 가까이 성장했다.

파스퇴르는 국내 최초 63도 건강한 저온살균 우유로 우유의 기준을 새로 바꾼 데 이어 친환경 무항생제 인증 목장의 원유로 국내 유가공 수준을 다시 한번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무항생제인증 바른 목장우유', '유산균 우유', '유기농 우유' 등 건강한 저온살균 우유를 생산하고 있다.

파스퇴르 관계자는 "자연에 가까운 건강한 우유를 만들기 위해 목장부터, 원유 가공 및 완제품까지 빈틈없는 관리를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소비자에게 좋은 제품을 선보이기 위해 더욱 엄격한 품질관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지 기자 kmj@metroseoul.co.kr

안심할 수 있는 귀한 원유

